A Study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Class
on the Subject of Teaching Essay Writing
- A Focus on Teaching Korean Writing and Reading-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이미영

2010년 8월
교육학석사학위전공 논문

국어 수업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읽기·쓰기 교육의 중심으로-

2010년 8월

지도교수 손 영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 교육 전공

이 미영
본 논문을 이미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0년 8월

주심

부심

부심
차 례

국 문 초 록 ........................................................................ iii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선행 연구 고찰 .......................................................... 3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 8

II. 논술과 국어 교육의 연관성 ......................................... 11
   1. 논술의 개념 ................................................................ 11
   2. 논술 능력과 읽기·쓰기 교육 ....................................... 13
   3. 논술과 읽기·쓰기 교육에 대한 실험 조사 ......................... 31

III. 국어 수업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 ................................ 45
   1.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 45
   2. 교과서 학습 활동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 54
   3. 수행평가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 66

IV. 결론 및 제언 .................................................................. 71

참 고 문 헌 ........................................................................ 74
부 록 ................................................................................. 77
ABSTRACT ...................................................................... 82
표 차례

[표Ⅱ-1] 7차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 내용 체계 ................................................. 18
[표Ⅱ-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 내용 체계 ................................................. 19
[표Ⅱ-3] 7차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 10학년 .................................................. 21
[표Ⅱ-4]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 10학년 .................................................. 23
[표Ⅱ-5] 7차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 내용 체계 .................................................. 25
[표Ⅱ-6]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 내용 체계 .................................................. 25
[표Ⅱ-7] 7차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 10학년 .................................................. 27
[표Ⅱ-8]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 10학년 .................................................. 29
[표Ⅲ-1]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한 질문과 대답 예시 .................................................. 47
[표Ⅲ-2] 교과서 지문 분석을 위한 질문과 대답 예시 .................................................. 49
[표Ⅲ-3] 요약하기의 지도 예시 .............................................................................. 51
[표Ⅲ-4] 비판적 읽기의 질문과 대답 예시 ............................................................... 52
[표Ⅲ-5] 문제 분석하기 지도 예시 ........................................................................ 56
[표Ⅲ-6] 답안 작성하기와 평가하기의 지도 예시 ....................................................... 58
[표Ⅲ-7] 학습 활동 예시 ......................................................................................... 59
[표Ⅲ-8] 계획하기의 질문 예시 ............................................................................. 61
[표Ⅲ-9] 문장 개요의 예시 ..................................................................................... 63
[표Ⅲ-10] 고쳐쓰기의 단계와 기준 ....................................................................... 64
[표Ⅲ-11] 상호 첨삭 기준 예시 .............................................................................. 65
[표Ⅲ-12] 평가 기준표 ......................................................................................... 70
국문 초록

논술은 대학들이 대학입학전형 방법으로 선택하고 대학 합격에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논술 지도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교육에서 논술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논술은 논술교사로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소수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교과 시간 외에 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논술은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글쓰기이다. 그러므로 논술은 모든 학생들에게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 시간을 활용한 논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논술은 읽기·쓰기 능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읽기·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는 국어 교과이므로 국어 수업을 통해 논술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읽기·쓰기 교육을 강화하면서 그 안에서 논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논술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술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I장은 논술의 개념과 논술 능력을 탐구한 후 국어 교육과정의 읽기와 쓰기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며 연관성을 내재 보았다. 그리고 학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교과와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과 읽기·쓰기 교육에 대한 실질 조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였 다.

논술과 읽기·쓰기 교육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II장은 논술을 통해 국어 수업을 통해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논술과 연계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 진행하므로 교과서의 지문과 학습 활동을 활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업은 평가와 이어지므로 수행평가를 활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내용과 방법을 종합해 볼 때 논술 교육은 논술학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아니다. 학교 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논술 능력은 신장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 수업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대로 충실히 하다면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읽기·쓰
기 능력과 사고력을 지닐 수 있다. 결국 공교육에서 논술 교육을 하기 위해 서는 이런 관점에서 수업과 연계한 다양한 논술 지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읽기·쓰기 교육에만 한정하고 있고 지도 방안을 검증하지 않았 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국어과의 다른 영 역과 연계한 지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검증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논술, 논술 능력, 읽기, 쓰기, 사고력, 논술 지도 방안, 국어 교육 과정, 국어 수업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논술고사의 영향이 커지며 논술 교육의 요구도 높아졌다. 하지만 객관식 기주의 평가가 시행되고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교과 지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상황에서 논술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논술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끝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사고를 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에서 그런 면을 유도해 교육을 하지 못하다 보니 논술 교육은 사교육이 주도 권을 잡게 되었다.

사교육에서 실시하는 논술 교육은 논술고사에서 고득점을 받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논술 기출 문제를 분석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 작성을 요령을 알려주고 연습시키는 형태를 띈다.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사고력은 이런 방법으로 신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에 사교육에 의지하지만 정작 논술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논술 사교육이 평창하고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자 공교육에서 논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이에 따라 교육 당국은 여러 정책을 썼다. 하지만 이런 교육 역시 논술을 논술고사로만 바라보고 있어 학교에서 실시한다는 점만 뿐 사교육의 논술 교육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논술고사를 보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 학교 교육과 중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논술은 학교 교육과 별개로 교육되어야 하고 소수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논술은 학생과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기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고 있다.

논술고사의 도입 취지를 보면 이런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울대는 통합 논술을 도입한 목적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엄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 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의 배양을 지향하여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논술 교육은 따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은 신장시키는 중요성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논술 교육은 모든 교과와 연관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국어 교과를 통해서도 논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논술은 언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언어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어 교과와는 특히 연관성이 높다.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는 대부분 제시문을 주고 그것을 토대로 해한 후 논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작성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읽기,쓰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 논술 작성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는 국어 교과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은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물론 읽기,쓰기 교육을 한다고 무조건 논술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논술을 다양한 주제를 따루고 있고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므로 이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읽기,쓰기 교육을 하면서 논술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강조한다면 현재처럼 학생들은 논술 자체를

1)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보도자료(2005.11.28)
두려워하여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논술 교육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논술만을 위한 지도 방안을 위해 국어 교과의 목표와 내용을 변경하기 보다는 읽기·쓰기 교육을 충실히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실현 연구 고찰

논술이 대학입학전형에 도입되고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논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논술이 우리 교육의 문제로 지적되는 지식 위주의 수업식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꾸준히 논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논술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논술의 개념과 성격, 대학입학시험으로서의 논술, 논술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논술 지도 방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지도 방안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기형(1999)은 논술의 기능이 표현력과 사고력의 양측으로 구성되었다는 전제 아래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의 설정하여 논술을 작성하게 한 후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논술
에 필요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지도 모형과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단계적 지도 방법을 제시 하였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 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김봉희(2001)는 논술을 문제해결과정으로 파악하고 논술 작성을 과정에 필요한 학생들의 능력 신장에 주안점을 두었다. 고등학교 2학년 120명을 대상 으로 설문 조사 및 결과를 분석해 과정중심의 논술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 였다. 단계적인 과정 지도를 함으로써 반영하였던 논술쓰기 능력이 짧은 시 간에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교사들의 집중적인 노력이 투여되고 과정 중 심의 단계적 논술 전략이 구체되면 충분한 교육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것에 의의가 있다.

김영태(2002)는 논술 교육 연구가 성과는 많으나 학교 교육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고등학교 특기 작성 교육이나 특별 활동 시간에 적용 가능한 논술 지도 방안을 구하고 있다. 본체 분석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통해 논설문의 쟁점, 주장, 근거를 찾도록 하였다. 요약하기, 단락 작성하기 등 논술쓰기에 필요한 기초능력을 기르는 구체적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이성근(2006)은 고등학교 2학년 9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전반 평 가를 실시해 분석하고 논술 작성을 관련 설문을 하여 논술 실태를 연구하였 다. 학생들의 논술 성적은 교육과정상 수준 편성 기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 지며 논술 수업 경험에 부족하여 논술 작성을 쓰기의 기본적인 전략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생들 수준에 따른 논술 작성 실태의 제시한 점에 의의가 있으며 표현 교육으로서 쓰기 교육, 설득하는 글쓰기에 서 실제적인 논술쓰기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정인수(2007)는 학교 현장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논술 지도 모형을 제시하 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 들의 논술에 나타난 문제점을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학별 논술고사의 구성 요소와 학생들이 실제 논술고사를 쓰는 과정을 분석해 논술 능력을 제시하
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학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 동안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논술을 지도받을 수 있는 방법과 논술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대학입시로서 논술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은영(2008)은 최근의 대학 논술고사에서 자료제시형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논술 능력 중 제시문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과 제시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비판적 독해력 등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전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시문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와 논술 작성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제시문의 활용을 통해 ‘내용생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제시문 분석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독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시문 활용 정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분석하기 위한 주요 원리와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논술고사에서 제시하는 제시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해서는 작문 교육과 더불어 독서 교육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위의 연구들은 논술 교육의 실태를 밝히고 중교육 안에서 논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논술을 교과와 연계하지 않다가 보니 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우 논술 교육을 위한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하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어 교과와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이 연구되었다.

최남영(1998)은 논술 교육이 학교의 하나로 간주되어 고등학교 교육에서 만 다루어지고 있으나 논술의 본질을 고려하면 중학교에서도 논술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학교에서 논술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논술 지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제로 써 보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논술의 철자와 중학교 3학년 교과서 ‘학습 활
동’을 연결, 활용하여 예상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논술 지도 방안으
로 열린교육의 학습모형을 이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술 교육을
국어 교육 안에서 실시할 수 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형근(2003)은 논술 교육의 중추적 역할은 국어과가 담당해야 하고 국어
능력이 논술 능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
다. 국어 교육 특히 쓰기 교육에서 학생의 사고력을 확장하고, 학생들의 법
교과적 지식, 생활에 체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표
현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논술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 보다 실천적인 지속적인 측면에서 논술 교육의 방안을 살펴 보는 점에 의의
가 있다.

윤미숙(2004)은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교수·학습 모형과 그에
바탕을 둔 논술 쓰기의 절차 및 전략을 구현하여 논술 지도의 한 방법을 제
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인문·사회과정 2반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으로 각각 선정하여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소설 텍스트
을 활용한 논술 지도가 결과 외부의 논술 지도에 비해 학습자의 논술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논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켰
음을 검증하였다. 국어 교육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부종철(2005)은 논술 교육이 법교과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교과적 지식
을 제배할·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사고력의 언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어과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글레이저
의 모형 중 교수·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목표 확인하기·활동하기·결정하기로
나누고 활동기는 읽기단계, 구상단계, 표현단계로 논술 교육의 절차를 제
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1단원과 5단원을 활용한 교
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국어 교육에서의 논술 교육 방법에 대한 설
체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고재현(2007)은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을 구현하여 학생들
의 논술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논술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
킨다는 가설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내용의 생성과 조직 면에서 상호작용을 활용한 논술 지도가 효과적이었고 논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논술 능력 신장 위해서는 임기 지도와 작문 능력 신장에 헌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김혜연(2007)은 논술 교육의 지향점이 7차 교육과정과 국어 교과의 교육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논술 교육의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10학년 국어(상)(하) 교과서의 기본 특징, 구성, 교육 내용과 영역 등을 다각도로 접근・분석한 후 교과서 텍스트를 재구성하여 논술 교육을 위한 전체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육 내용과 단원의 성격, 목표,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논술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경완(2008)은 논술의 중요성에 비해 학교 현장에서는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교과 수업을 통한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밝히고, 교수・학습 설계 및 지도 방안을 모색하였다. 논술의 개념과 도입 과정 및 현행 논술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범교과적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국어 시간에 이루어진 논술 지도 과정 및 구체적인 수업 사례를 제시하였다. 논술 교육이 대학 입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수업의 내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임국향(2009)은 국어 시간에 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의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과정 중심의 글쓰기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교과 학습과 더불어 효과적인 논술 쓰기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교과서 단원을 바탕으로 논술 지도에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고민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어 교과를 통해 논술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공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논술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 교과를 통해 교육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에게 논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교과 시간 외에 따로 교육하
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과 교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각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통해 평가를 하고자 하는 능력은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가룰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논술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과 같다.

현재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논술 작성에 필요한 논술 능력을 갖추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논술교육을 도입하면서 정상적
인 학교 교육을 통해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지만 현재 학교 교육
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과교육 안에
서 논술 교육이 이루어지지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암기를 통한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사고력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하고 그 속에서 논술 능력을 어
렇게 길러줄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한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논술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특정 교과와 연관되기 보다는 법
교과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를 통
합 논술이라 부른다. 통합교과적인 사고를 통해 논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기 위해서는 각 교과의 통합
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각 교과가 독립적인 상태에서
교육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통합적인 논술 교육은 교과 시간을
통해 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술 교육은 개별 교과 안에서 논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어 교과에 한정해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어 교과는 국민통기본교과인
국어와 선택교과인 독서, 작문, 화법, 문학, 문법, 국어생활로 구성되어 있다.
논술 교육은 논술고사를 치르는 특정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
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국민공
통기본교과인 국어 교과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국어 교과는 듣기.
말하기·읽기·쓰기·문학·국어지식의 여섯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중 논술
작성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임기와 쓰기이므로 두 영역을 중점으
로 논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 II장은 본 논문의 개념, 논술 능력, 국어 교육과 논술의 연관성을 밝
히고,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는 우선 지도의 대상인 논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므로 선행연구를 바탕
으로 개념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논술을 지도한다는 것은 논술 작성에 필
요한 능력 즉 논술 능력을 신장시켜준다는 것이므로 논술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국어 교육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육에서 어떤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 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므로 교육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학년별 내용을 통해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논술과의 연관성을 파져 본다. 단 임기와 쓰기가 논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다고 보므로 임기와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어 교육과정은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현
제 국어 교육은 7차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고 2011년부터는 개정 교육
과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학교 현장
에서 논술과 국어 교육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임기·쓰기 교
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국어 수업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어 수업은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교과서
를 활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과서는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
과서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교육과정에서 임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
듯이 지도 방안 역시 임기와 쓰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임기 활동은 교
과서 지문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
고, 쓰기 활동은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학습 활동을활
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업은 평가의도 연계가 되어야
하므로 수행평가를 활용한 지도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공교육 안에서 논술 교육이 나아질 방향을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국어 교육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나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검증하지 못해 지도 방안의 실효성을 따져 보는 범위까지는 나가지 못했다. 또한 국어 수업은 말하기·듣기·문학·문법도 다루고 있는데 읽기와 쓰기에만 한정해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II. 논술과 국어 교육의 연관성

논술이라는 용어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논술 시험
이 대학입학전형의 하나로 도입된 1987년이다. 그 후로 논술 시험이 대학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형이 되면서 논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관심은 논술교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
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지 논술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논
술의 개념도 학계에서 통일된 것이 없고 논술 작성에 필요한 능력도 명확하
게 규명되지 않았다. 국어 교육과 논술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논
술의 개념, 논술 능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면에서
국어 교육과 논술이 연관성을 갖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교사와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 조사 결과를 분석해 논술과 국어 교육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기·쓰기 교육
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논술의 개념

논술(論述)은 사전적 의미만을 고려하면 ‘의견을 논하여 말하는 것, 또는
그 서술’이라 할 수 있다. 의견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범위가 넓다 보니 논
술은 바람직한 관점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논술에 대한 연구
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나 학문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쳐 논술의 개념을 명
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형 연구자의 견해들 중 비슷한
관점을 가지며 논술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다. 박영묵(1994)은
고도의 의사소통수단으로서 비판적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
을 전개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경의하였다. 김태형
(1997)은 문제 지향적, 발산적, 주체적, 논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여 문제의


통찰한 과정의 결과를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연구자들의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은 종합해 보면 논술은 문체 발전과 해결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 비판적·논리적 사고가 전체되고 글쓰기를 통해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논술은 비판적·논리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글쓰기라 볼 수 있다.

2. 논술 능력과 읽기·쓰기 교육

1) 논술 능력

논술 능력은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그러므로 논술 교육은 학생들이 논술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논술 교육이 논술교육의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 논술 교육도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보니 논술교육은 교육자 하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내용도 논술교육 기울 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거나 논술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논술 작성 요령을 익히는 전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교육은 논술 작성에 필요한 요령만 알려주고 근본적으로 논술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신장시켜 주지 못한다. 이런 논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 능력을 갖추 수 없고 결과적으로 논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도 힘들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실제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할 논술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선형 논문들을 바탕으로 논술 능력을 정리하고자 한다.

원진숙(1995)은 논술 능력을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언어로 서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법적 언어 능력, 담화 구성 능
력, 논리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인지 능력을 하위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법적 언어 능력은 언어규범을 정확하게 적용하여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며, 논술에 적합한 문체를 구사하는 능력이다. 담화 구성 능력은 내용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단락을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는 능력이다. 논리적 사고력은 논체와 관련한 중부한 지적 정보를 제시하며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논증을 구사하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은 문체를 파악하고 유창한 사고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사회적 인지 능력은 독자의 범주를 효과적으로 설정하여 공감의 기체와 전략을 확보하며 주제의 설득력을 전달하는 능력이다.

김봉희(2001)는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논거를 발견하고 그 논거를 바탕으로 문체를 해결,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문제의 전체 상황과 연관 지어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통일성·완결성·간밀성을 유지하면서 논리를 전개할 수 있는 주론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논술도 글쓰기이므로 일관성과 단계성, 간밀성을 유지하면서 글을 구성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구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기철(2003)은 논술 능력을 제시문 해석 능력, 문제 파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글쓰기 능력으로 보고 있다. 제시문 해석 능력은 논술고사에 등장하는 제시문을 독해하는 능력이다. 문제 파악 능력은 면밀한 관찰력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이다. 문제 해결 능력은 인식한 문제 상황을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능력이다. 글쓰기 능력은 일반적인 글쓰기 절차를 익히고 어휘력·문장력·구성력·개요 작성 능력을 갖추어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다.

김진경(2005)은 논술 능력을 가치 평가 능력, 사고력 관련 능력, 법교과적 작문 관련 능력, 표현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가치 평가 능력은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 제시문에 나타난 의미와 원리 등을 도출하는 능력, 제시문을 읽고 의미 있는 관점을 설명하는 능력, 논점을 파악하는 능력, 제시문에 나타난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사고력 관련 능력은 상황 적응
능력, 입장 제시 능력, 해결 방안 제시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법과과학적 작문 능력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교과 텍스트 조직 방식에 대한 지식, 교과 표현 방식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다. 표현 능력은 어휘력, 문장구성력, 텍스트 구조 이해 및 전개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인수(2007)는 논술 능력을 논제 분석을 위한 읽기 능력 및 사고력, 논리적 전개를 포함한 글쓰기 능력, 지식 보유 능력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대입 논술 문제는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읽기 능력 및 이해·분석력을 포함하는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 논술을 쓰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만 구상하여 즉흥적으로 고집어내는 것보다 개요 작성 내용을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둘을 잡아 실제 글을 작성해야 하므로 쓰기 능력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신이 전개하려는 글의 흐름에 어울리는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 논술 내용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지식 보유 능력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연구자들에 따라 논술 능력을 나누는 기준과 사용한 용어의 차이가 있지만 언급하고 있는 논술 능력들 중 유사한 것들을 묶어 보면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사고력으로 반주화할 수 있다.

논술은 글쓰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논술에서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소할 수 있다. 그래서 논술의 연구도 쓰기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도 방안도 쓰기에 주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쓰기는 문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다므로 읽기와 연관성을 갖는다. 논술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논제를 이해해야 한다. 논제는 대부분 문자로 제시하기 때문에 읽기를 통해 그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재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고사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제시문이나 자료를 주고 그것들 바탕으로 논술을 작성하라는 것이다. 주어진 제시문이나 자료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쓰기 능력이 있어도 요구한 방향대로 글을 써 수 없다. 그래서 읽기 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도 읽기를 통해 대부분 형성되므로 읽기는 쓰기의 이루어지기 위한 전체 조건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행 연구에서도 논술 분석 능력, 제시문 해석 능력, 문제 및 원인 파악 능력, 가치 평가 능력, 지식 보유 능력 등을 제시하며 읽기 능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논술은 특히 분석적·비판적 읽기 능력을 필요로 한다. 논제와 제시문이나 자료를 통해 문제 및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분석적 읽기가 필요하며 주어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므로 비판적 읽기 능력을 요구한다.

논술은 글쓰기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쓰기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논제가 요구한 대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쓰기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며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문법적 언어 능력, 담화성 부족, 어휘력, 문장 구성력, 문단 구성력, 내용 전개 및 조직 능력, 개요 작성 능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글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해서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술은 성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논리적인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논리라는 것은 논리학에서 다루는 전문적인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함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논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성질이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기 때문이다.

논술에 필요한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논술고사에서 읽기와 쓰기 활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결국 학생들의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논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고력이라 할 수 있다. 논술에만 요구되는 특별한 사고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술은 논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분석적·비판적·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한다. 또한 논술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점
에서 빛이나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의적 사고도 요구된다.

2) 논술과 읽기·쓰기 교육의 연관성

논술에 필요한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사고력은 국어 교육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국어 교육은 국어를 정확하고,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국어 활동을 통한 고등 사고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현과 이해 활동에 쓰기와 읽기가 들어가고 고등 사고력은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논술과 국어 교육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어떤 면에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파져 보기 위해서는 우선 읽기와 쓰기 교육이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떤 것들을 교육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현재의 공교육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에서는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정하고 이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든 것이 각 교과별 교육과정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과도 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국어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읽기와 쓰기 교육의 내용은 국어 교육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교육과정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과 201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읽기와 쓰기 교육과 논술의 연관성을 파져 보는 것이므로 교육과정의 내용 중 읽기와 쓰기 영역에 중점을 둔다.

국어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내용 부분이다. 내용은 학년별 내용을 선정하는 준거인 내용 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선정한 교육 내용을 학년별로 제시한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어 교과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읽기와 쓰
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을 제시하며 읽기와 쓰기 교육이 학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년별 내용은 다 다르기는 하고 분량이 너무 많으므로 둘러보는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읽기와 쓰기의 교육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민공통기본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10학년에 대한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본 후 논술과의 연관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읽기 영역

① 내용 체계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는 [표 II-1],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 읽기 영역의 내용 체계는 [표 II-2]와 같다.

[표 II-1] 7차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 내용 체계

<table>
<thead>
<tr>
<th>읽기의 본질</th>
<th>읽기의 원리</th>
<th>읽기의 태도</th>
</tr>
</thead>
<tbody>
<tr>
<td>필요성</td>
<td>난량 이해</td>
<td>동기</td>
</tr>
<tr>
<td>목적</td>
<td>내용 확인</td>
<td>홍미</td>
</tr>
<tr>
<td>개념</td>
<td>추론</td>
<td>습관</td>
</tr>
<tr>
<td>방법</td>
<td>평가와 감상</td>
<td>가치</td>
</tr>
<tr>
<td>상황</td>
<td>특성</td>
<td>-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td>
</tr>
<tr>
<td>특성</td>
<td>- 설득하는 글 읽기</td>
<td></td>
</tr>
<tr>
<td>- 정서 표현의 글 읽기</td>
<td>- 친교의 글 읽기</td>
<td></td>
</tr>
</tbody>
</table>
### [표 II-2]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읽기 영역 내용 체계

<table>
<thead>
<tr>
<th>읽기의 실제</th>
<th>기능</th>
</tr>
</thead>
<tbody>
<tr>
<td>-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td>
<td>- 내용 확인</td>
</tr>
<tr>
<td>- 설득하는 글 읽기</td>
<td>- 추론</td>
</tr>
<tr>
<td>-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 읽기</td>
<td>- 평가와 감상</td>
</tr>
<tr>
<td>- 정서 표현의 글 읽기</td>
<td></td>
</tr>
</tbody>
</table>

#### 지식
- 소통의 본질
- 글의 특성
- 매체 특성

#### 면락
- 상황 면락
- 사회·문화적 면락

7차와 개정 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서 교수·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유사하다.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7차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면서 보완할 점만을 개정한 것이 개정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은 유사하지만 교육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차이가 있다. 7차 교육과정은 본질, 원리, 테두를 상위 범주로 두고 실제를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본질, 원리, 테두를 사용하고 그 것을 실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개정 교육과정은 실제 범주를 상위 범주로, 지식, 기능, 면락을 하위 범주로 설정하고 있다. 다양한 글을 읽는 활동인 실제를 통해 내용 요소를 익히게 한 것이다.

7차의 본질 부분은 읽기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또는 읽기 과정 속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필요성은 읽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이다. 필요성은 읽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이다. 필요성은 읽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이다. 필요성은 읽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이다. 필요성은 읽기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전제이다. 필요성은 읽기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목적과 상황은 글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목적과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본질의 방법과 연결된다. 7차의 본질 부분은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 부분과 연결된다. 명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의 본질에 동기, 필요성, 개념이 글의 특성에 특성, 방법, 목적에 들어갈 수 있다.
7차의 원리 부분은 글을 읽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기능 부분과 연결된다. 글을 읽는 것은 학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용 이해가 필요하다.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모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해 의미를 구성해야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것이 주론이다. 읽기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므로 일방적으로 의미를 수용하지 않는다. 글을 읽고 내용과 글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평가해 글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감상을 통해 글의 의미를 내면화할 수 있다.

7차의 대도 부분은 학생들이 읽기 과정에서 갖추어야 하는 대도를 언급하며 읽기 대도의 중요성을 알려 준다. 이 부분은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개정 교육과정은 맥락 부분을 설정하여 맥락에 따라 읽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려할 대상임을 알려 준다.

7차의 개정 교육과정의 실제 부분은 정보 전달, 심복, 정서 표현, 친교(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변경)의 글 읽기를 활동으로 두고 있다. 다양한 목적의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읽기 영역에서 언급한 내용 요소들을 적용해 읽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차의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살펴본 결과 읽기 영역은 읽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모두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목적의 글 읽기를 통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읽기 능력을 읽기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갖출 수 있다. 그러므로 읽기 교육은 논술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2) 학년별 내용

학년별 내용을 통해 읽기 영역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면에서 논술과 연관성이 있는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모든 학년별 내용은 다 다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10학년의 내용만을 다룬다. 10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10학년이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마지막 단계이므로 1학년부터
9학년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의 내용은 [표Ⅱ-3], 개정 교육과정의 10학년 내용은 [표Ⅱ-4]와 같다.

<table>
<thead>
<tr>
<th>내용</th>
<th>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1) 읽기와 의사 소통의 행위임을 알다.</td>
<td>[기본] 의사 소통으로서의 읽기 특성을 설명한다. [심화] 읽기와 듣기, 말하기, 쓰기로 의사 소통 행위의 측면에서 비교한다.</td>
</tr>
<tr>
<td>(2) 필요한 정보를 찾으며 글을 읽는다.</td>
<td>[기본]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읽는 목적을 고려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는다. [심화]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내는 방법에 대해 도의한다.</td>
</tr>
<tr>
<td>(3) 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읽는다.</td>
<td>[기본]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재조직하며 글을 읽는다. [심화] 글쓰이기 글을 쓰 때에 어떤 정보는 선택하고 어떤 정보는 생략했다는 점에 유의하며 글을 읽는다.</td>
</tr>
<tr>
<td>(4) 표현의 효과에 대하여 평가하며 글을 읽는다.</td>
<td>[기본] 표현상의 특징을 알아보며 글을 읽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 [심화] 주제나 글감이 같은 여러 글을 읽고,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하고 평가한다.</td>
</tr>
</tbody>
</table>
(6) 임기 활동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잃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항상 자신의 임기 활동을 인식, 점검, 보완하면서 글을 읽는다.
[심화] 자신의 임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성에 대해 토의한 다.
유능한 독자의 임기 전략을 조사한다.

(1)~(6)의 내용과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들은 모두 임기 능력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들이므로 모두 논술과 연관성이 있으나 (2)와 (3)은 분석적 임기, (4)와 (5)는 비판적 임기와 관련되는 활동이므로 특히 연 관성이 높다.

논술은 논제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2)를 통해 읽는 목적을 고려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효율 적으로 글을 읽을 수 있고 논술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선택하여 논술을 작 성할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글은 모든 내용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략된 내용은 추론함으로써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글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3)을 통해 논술에 필요한 분석적 임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4)와 (5)는 제시문의 표현 효과와 신뢰성·타당성을 평가해 뿐으로서 글을 비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글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배울 수 있고 이것은 표현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논술 작성에 도움이 된다.
<table>
<thead>
<tr>
<th>성취 기준</th>
<th>내용 요소의 예</th>
</tr>
</thead>
</table>
| (1) 사회적 규약을 탐한 글의 특성을 알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평가한다. | • 규약문의 특성 파악하기  
• 규약문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 권리 및 의무 관련 규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평가하기  
• 인터넷 사례에 규약문 이해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맥락 이해하기 |
| (2) 법률적 쟁점은 다른 글을 읽고 사건의 개요와 판단의 취지를 파악한다. | • 법률적 쟁점을 다룬 글의 특성 이해하기  
•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  
• 대립되는 주장의 정당성 평가하기  
• 판단의 취지와 시대적·사회적 의미 파악하기 |
| (3) 여러 글을 읽고 전체나 가정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다. | • 전체, 가정 등의 개념 이해하기  
• 글의 전체와 가정을 분석하면서 읽기  
• 글의 전체나 가정을 파악하여 다른 글과 비교하기  
• 전체나 가정을 중심으로 글의 타당성 평가하기 |
| (4) 면담 기사를 읽고 질문자와 의도, 질문 전략, 질문 대도 등 평가한다. | • 면담 기사의 특성 이해하기  
• 면담 기사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의의 평가하기  
• 대상인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 면담 기사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항목 설정하기 |
| (5) 인기 도서를 읽고 책의 가치와 인기를 얻게 된 원인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 •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책들의 특성과 분야 파악하기  
•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된 원인을 책의 내용에서 추론하기  
• 신문, 방송 등 책의 인기에 작용한 여러 요인을 파악하기  
• 인기 도서에 반영된 당대의 문화적 기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 |
10학년의 내용은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의 예로 구성되어 있다. 성취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클의 종류도 다르고 그에 따른 내용 요소도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내용 이해, 추론, 평가와 관련된 활동을 두고 있다. 내용 이해와 추론은 분석적 읽기와 평가는 비판적 읽기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술과 연관성이 있다. 연관되는 항목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적 읽기와 연관되는 내용 요소에는 규약분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의 개요 파악하기, 글의 전제와 가정을 분석하며 읽기, 대상 인물의 데이터를 불리일으키는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된 원인을 책의 내용에서 추론하기가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해 볼므로써 분석적 읽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비판적 읽기와 연관되는 내용 요소에는 권리 및 의미 관련 규정의 공정성과 합리성 평가하기, 대립되는 주장의 정당성 평가하기, 전제나 가정을 중심으로 글의 타당성 평가하기, 편집 기사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과 의의 평가하기, 인기 도서에 반영된 당대의 문화적 기회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가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글을 평가해 볼므로써 비판적 읽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볼 때 읽기 영역은 학생이 글을 읽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내용 체계를 통해 읽기 교육에서 꺼 다르게 할 준비를 마련하고 그것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조금씩 범주를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신장할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교수·학습하고 특히 논술에 필요한 분석적·비판적 읽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초점을 두다면 읽기 교육만으로도 논술에 필요한 읽기 능력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다.
(2) 쓰기 영역

① 내용 체계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는 [표Ⅱ-5], 개정 교육과정의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는 [표Ⅱ-6]와 같다.

<table>
<thead>
<tr>
<th>[표Ⅱ-5] 7차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 내용 체계</th>
</tr>
</thead>
<tbody>
<tr>
<td>· 쓰기의 본질</td>
</tr>
<tr>
<td>- 필요성</td>
</tr>
<tr>
<td>- 목적</td>
</tr>
<tr>
<td>- 개념</td>
</tr>
<tr>
<td>- 방법</td>
</tr>
<tr>
<td>- 상황</td>
</tr>
<tr>
<td>- 특성</td>
</tr>
<tr>
<td>- 컴퓨터로 글쓰기</td>
</tr>
<tr>
<td>· 쓰기의 원리</td>
</tr>
<tr>
<td>- 글씨쓰기</td>
</tr>
<tr>
<td>- 내용 생성</td>
</tr>
<tr>
<td>- 내용 조각</td>
</tr>
<tr>
<td>- 표현</td>
</tr>
<tr>
<td>- 고쳐 쓰기</td>
</tr>
<tr>
<td>· 쓰기의 태도</td>
</tr>
<tr>
<td>- 동기</td>
</tr>
<tr>
<td>- 홍미</td>
</tr>
<tr>
<td>- 슬관</td>
</tr>
<tr>
<td>- 가치</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표Ⅱ-6]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 내용 체계</th>
</tr>
</thead>
<tbody>
<tr>
<td>· 쓰기의 실제</td>
</tr>
<tr>
<td>-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td>
</tr>
<tr>
<td>- 설득하는 글쓰기</td>
</tr>
<tr>
<td>- 정서 표현의 글쓰기</td>
</tr>
<tr>
<td>- 편교의 글쓰기</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쓰기의 실제</th>
</tr>
</thead>
<tbody>
<tr>
<td>-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td>
</tr>
<tr>
<td>- 설득하는 글쓰기</td>
</tr>
<tr>
<td>- 사회적 상호 작용의 글쓰기</td>
</tr>
<tr>
<td>- 정서 표현의 글쓰기</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지식</th>
</tr>
</thead>
<tbody>
<tr>
<td>◦ 소통의 본질</td>
</tr>
<tr>
<td>◦ 글의 특성</td>
</tr>
<tr>
<td>◦ 매체 특성</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기능</th>
</tr>
</thead>
<tbody>
<tr>
<td>◦ 내용 생성</td>
</tr>
<tr>
<td>◦ 내용 조각</td>
</tr>
<tr>
<td>◦ 표현과 고쳐 쓰기</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맥락</th>
</tr>
</thead>
<tbody>
<tr>
<td>◦ 상황 맥락</td>
</tr>
<tr>
<td>◦ 사회·문화적 맥락</td>
</tr>
</tbody>
</table>
7차와 개정 교육과정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 구성은 읽기 영역과 거의 동일하다. 읽기와 쓰기는 이해와 표현 활동으로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면을 고려해 내용 체계를 구성한 것이다. 다만 쓰기는 표현 활동이므로 실제 부분에서 글쓰기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원리도 글쓰기에 필요한 글씨 쓰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 고쳐 쓰기, 컴퓨터로 글쓰기를 하위 요소도 두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은 이 중에서 글씨 쓰기와 컴퓨터로 글쓰기를 제외하고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고쳐 쓰기를 하위 요소로 두고 있다.

7차와 개정 교육과정은 글쓰기에 필요한 전반적인 요소를 모두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원리(기능) 부분을 통해 글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와 그에 따른 글쓰기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의 글쓰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논술에 필요한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설득하는 글쓰기를 통해 논술에 필요한 논리적 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쓰기 교육은 논술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② 학년별 내용

쓰기 영역의 학년별 내용도 읽기 영역과 같이 10학년의 내용과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통해 구체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7차 교육과정의 10학년의 내용은 [표Ⅱ-7], 개정 교육과정의 10학년 내용은 [표Ⅱ-8]과 같다.
<table>
<thead>
<tr>
<th>내용</th>
<th>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1) 쓰기가 의사 소통 행위임을 얻는다.</td>
<td>[기본] 의사 소통으로서 쓰기의 특성을 설명한다. [심화] 신문이나 잡지에서 논쟁이 이어진 예를 찾아보고, 쓰기가 가지는 사회적 역할에 대해 도의한다.</td>
</tr>
<tr>
<td>(2) 상황에 따라 내용을 적절하게 생성하여 글을 쓴다.</td>
<td>[기본] 독자,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자료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글을 쓴다. [심화] 자신의 독창적인 내용 생성 원리를 적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생성하여 글을 쓴다.</td>
</tr>
<tr>
<td>(3) 내용 조각의 일반 원리를 따라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작하여 글을 쓴다.</td>
<td>[기본] 독자,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하여 내용의 전체 방식을 조절하고 동일성과 응집성에 유의하여 글을 쓴다. [심화] 자신의 독창적인 내용 조작 원리를 적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용을 조작하여 글을 쓴다.</td>
</tr>
<tr>
<td>(4) 표현의 일반 원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글을 쓴다.</td>
<td>[기본] 독자, 주제,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 방식과 적절한 문제로 글을 쓴다. [심화]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 원리를 적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td>
</tr>
<tr>
<td>(6)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태도를 지닌다.</td>
<td>[기본]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글을 쓴다. [심화] 창의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왜 가치가 있는지 말한다.</td>
</tr>
</tbody>
</table>

(1)은 쓰기의 본질, (6)는 쓰기의 태도와 연관된다. (1)을 통해 쓰기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독자를 고려해 글쓰기를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 글쓰기의 하나인 논술도 의사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을 안다면 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인 논제를 고려해 논술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6)은 창의적 글쓰기를 강조하고 있다. 논술은 창의적인 생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글쓰기에 필요한 방법을 알고 그것의 가치를 알면 논술에서 요구하는 창의력을 갖출 수 있다.

(2)는 원리 중 내용 생성과 연관된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글을 쓰 때 무엇을 쓸지 불라 어려움을 겪는다. 논술을 작성할 때도 어떻게 내용을 생성해야 할지 불라 글 자체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내용 생성 전략을 의히는 것을 중요하다. 내용 생성하기는 창의적 사고 활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창의적 사고 활동을 통해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창신한 생각이나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추론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

(3)은 원리 중 내용 조작하기와 연관된다. 내용 조작하기는 생성하기 과정에서 만들어 낸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글의 조작 원리에 맞추어 배열하는 단계이다. 글은 일관성, 통일성, 간결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구성되고 내용 전개의 방법에는 분석, 묘사, 분류, 예시, 정의, 비교와 대조, 유추, 서사, 과정, 인과 등이 있다. 이런 내용 조작의 원리를 의히고 글을 쓰면 체계적인 글을 쓸 수 있다. 논술도 한 편의 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조작해야 한다. 내용 조작의 원리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논술을 작성할 수 있다.

(4)는 원리 중 표현하기와 연관된다. 표현하기는 추상적인 생각을 문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즉 예상되는 독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독자 중심으로 내용을 전환하는 과정이다.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하고 간결한 문장과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논술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쓰는 글이므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표현하기 전략이 필요하다.

(5)는 원리 중 고치 쓰기와 연관된다. 고치 쓰기는 지금까지 작성한 글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설정한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단계이다. 고치 쓰기는 글 전체, 문단, 문장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글
전체 수준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 주제 및 소주제의 조정이나 첨가, 글의 통일성 및 일관성 확인 등의 활동을 한다. 문단 수준에서는 문단 구조의 적절성 확인, 아이디어의 배열 순서 조정, 중심 문장 또는 보충 문장 첨가, 연결어의 첨가 등의 활동을 한다. 문장 수준에서는 상투어 또는 무의미어의 삭제, 접속어 및 지시어의 조정, 피동문의 적절성 확인 등의 활동을 한다. 고쳐 쓰기를 통해 자신이 글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글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좋은 논술을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다.

10학년의 내용은 글쓰기에 필요한 단계와 그에 따른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년별 내용을 통해 글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학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글쓰기 활동을 자주 한다면 논술에 필요한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표Ⅱ-8] 개정 교육과정 국어과 쓰기 영역 10학년

<table>
<thead>
<tr>
<th>성취 기준</th>
<th>내용 요소의 예</th>
</tr>
</thead>
<tbody>
<tr>
<td>(1)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주변 인물에 대한 전기문을 작성한다.</td>
<td>◦ 전기문의 일반적 특성 이해하기&lt;br&gt;◦ 주변 인물을 면담하고, 조사한 내용을 시간, 공간의 범주에 따라 정리하기&lt;br&gt;◦ 전기문을 읽는 독자의 동기 고려하기&lt;br&gt;◦ 주변 인물의 삶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로 글쓰기</td>
</tr>
<tr>
<td>(2) 그림이나 사진, 그래프나 도표 등의 자료를 해석하는 글을 쓴다.</td>
<td>◦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과 유의점 이해하기&lt;br&gt;◦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그림이나 사진 등을 해석하기&lt;br&gt;◦ 해석하는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 고려하기&lt;br&gt;◦ 해석한 내용을 논리적 순서로 조직하여 표현하기</td>
</tr>
</tbody>
</table>
| (3) 시사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시평을 쓴다. | ◦ 시평의 기능과 특성 이해하기  
◦ 자신의 관점, 건해를 연역적 구성 방식에 따라 정리하기  
◦ 관점의 합리성, 공정성, 병목성을 유지하면서 시평 쓰기  
◦ 시사 문제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해하기 |
| (4)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체험, 사고, 가치를 고려하면서 삭제문을 쓴다. | ◦ 삭제문의 유형, 기능, 특성 이해하기  
◦ 삭제문의 유형, 기능,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하기  
◦ 청중이 공유하고 있는 체험, 사고, 가치를 이해하고 고려하기  
◦ 행사의 목적, 청중, 발표 형식을 고려하여 표현하기 |
| (5)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을 드러내는 비평문을 쓴다. | ◦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글의 일반적 특성 이해하기  
◦ 예술 작품에 대한 심미적 경험 따올리기  
◦ 예술의 방법을 통해 논지 전개하기  
◦ 비평문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맥락 이해하기 |

(1)의 전기문을 작성하기를 통해 내용을 선정하는 방법과 독자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선별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논술을 작성할 때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독자의 요구에 따라 같은 자료지만 선정되는 내용과 내용 조직의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논술을 작성할 때 논제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할 수 있다.

(2)의 자료를 해석하는 글쓰기를 통해 자료 해석 방법과 그것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과 유의점을 알고 직접 해석해 봄으로서 분석력을 키워줄 수 있고 그것을 글로 써 봄
으로써 글을 쓰는 목적과 독자를 고려해 논리적으로 조직함으로 논리력을 가를 수 있다.

(3)의 시평 쓰기를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와 자신의 관점을 합리성, 공정성, 명료성을 유지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시평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견해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논거가 구체적이고 타당하고 표현이 명료해야 한다. 이는 논술 작성 시에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시평 작성은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가를 수 있다.

(4)의 식사문 쓰기를 통해 상황을 고려해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 논술도 시시문과 논재를 고려해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고 표현해야 하므로 연관될 수 있다.

(5)의 비평문 쓰기를 통해 주어진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과 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를 수 있다. 비평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기에 설득하는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는 논술에서도 필요한 전개 방식이므로 연관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볼 때 쓰기 영역은 잠기 영역과 마찬가지로 글쓰기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내용 체계를 통해 쓰기 교육에서 폭 다루어야 할 주제를 마련하고 그것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조급식 범주를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은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교수·학습하고 논리적인 글쓰기에 초점을 둔다면 쓰기 교육만으로도 논술에 필요한 쓰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3. 논술과 잠기·쓰기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잠기와 쓰기 능력을 학생들이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은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잠기와 쓰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결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잠기·쓰기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도 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읽기·쓰기의 교육의 실태를 우선 파악하기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어 수업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과 국어 교사가 읽기·쓰기 교육이 논술과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읽기·쓰기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읽기·쓰기 교육과 논술의 연관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1) 설문 조사 시기

2008년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다.

2) 설문 조사 방법

교사와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문항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쓰기 교육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과 논술과 읽기·쓰기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형식은 문항에 따른 선택지를 고르는 방식이다.

3) 설문 대상

인천에 소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중 남자고등학교 1곳, 여자고등학교 1곳을 선정해 남학생 339명, 여학생 354명으로 총 693명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사는 인천에 소재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국어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 교사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선택한 이유는 논술이 현재 대학입학전형의 하나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가장 관심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학년이
기 때문에 공교육 기간 동안에 받은 읽기와 쓰기 교육의 실패를 파악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교사 중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읽기·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 담당자이므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4) 설문 조사 분석

(1) 교사 대상 설문 조사 분석

인천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56명의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논술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이 논술을 작성할 때 어려워하는 부분, 국어 교육과 논술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필요에 따라 하위 문항을 두었다.

논술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우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술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국어 교사들은 논술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1. 논술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필요하다</th>
<th>필요 없음</th>
<th>무응답</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53</td>
<td>2</td>
<td>1</td>
<td>56</td>
</tr>
<tr>
<td>비율(%)</td>
<td>94.6</td>
<td>3.5</td>
<td>1.9</td>
<td>100</td>
</tr>
</tbody>
</table>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4.6%를 차지하고 있다. 국어 교사 대부분은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어 교사들이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논술을 논술교사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논술을 작성할 때 학생들이 어떤 면을 어려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논술 작성은 논술교사를 위해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논술교사에서 요구하는 요소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순서대로 세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 2.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을 어려워한다고 보십니까?

<table>
<thead>
<tr>
<th>항목</th>
<th>선택 순서</th>
<th>첫 번째 웅담수(비율%)</th>
<th>두 번째 웅담수(비율%)</th>
<th>세 번째 웅담수(비율%)</th>
</tr>
</thead>
<tbody>
<tr>
<td>글쓰기 자체</td>
<td></td>
<td>30(53.6)</td>
<td>6(10.7)</td>
<td>5(8.9)</td>
</tr>
<tr>
<td>제시문 내용 파악</td>
<td></td>
<td>6(10.7)</td>
<td>14(25)</td>
<td>7(12.5)</td>
</tr>
<tr>
<td>논제 파악</td>
<td></td>
<td>11(19.6)</td>
<td>14(25)</td>
<td>8(14.3)</td>
</tr>
<tr>
<td>논리적 전개</td>
<td></td>
<td>1(1.9)</td>
<td>13(23.2)</td>
<td>16(28.6)</td>
</tr>
<tr>
<td>비판적 사고</td>
<td></td>
<td>3(5.3)</td>
<td>2(3.6)</td>
<td>9(16.1)</td>
</tr>
<tr>
<td>창의적 사고</td>
<td></td>
<td>5(8.9)</td>
<td>7(12.5)</td>
<td>11(19.6)</td>
</tr>
<tr>
<td>합계</td>
<td></td>
<td>56(100)</td>
<td>56(100)</td>
<td>56(100)</td>
</tr>
</tbody>
</table>

교사들은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요소를 글쓰기 자체, 제시문 내용 파악, 논제 파악, 논리적 사고로 보고 있다. 글쓰기 자체 를 어려워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논술 작성에 필요한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논제와 제시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읽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논리적 전개를 어려워한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논리력을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 교육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이런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읽기와 쓰기 교육이 논술에 설계적인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논리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교육이 학생들의 논술 능력 선장에 설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국어 교육이 논술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설문 문항> 3. 국어 교육을 통해 논술 작성이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있다</th>
<th>없다</th>
<th>무응답</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50</td>
<td>6</td>
<td>0</td>
<td>56</td>
</tr>
<tr>
<td>비율(%)</td>
<td>89.3</td>
<td>10.7</td>
<td>0</td>
<td>100</td>
</tr>
</tbody>
</table>

89.3%에 해당되는 교사들이 국어 교육을 통해 논술 작성이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국어 교사 대부분은 논술과 국어 교육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어 교육이 논술 작성이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 교사들은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논술 능력을 분석력, 논리력, 표현력, 창의력, 비판력으로 나누고 가장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 3-1. 있다면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table>
<thead>
<tr>
<th>항목</th>
<th>선택 순서</th>
<th>첫 번째 응답수(비율%)</th>
<th>두 번째 응답수(비율%)</th>
<th>세 번째 응답수(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분석력</td>
<td>30(60)</td>
<td>27(54)</td>
<td>13(26)</td>
<td></td>
</tr>
<tr>
<td>논리력</td>
<td>3(6)</td>
<td>11(22)</td>
<td>9(18)</td>
<td></td>
</tr>
<tr>
<td>표현력</td>
<td>17(34)</td>
<td>7(14)</td>
<td>16(32)</td>
<td></td>
</tr>
<tr>
<td>창의력</td>
<td>0(0)</td>
<td>4(8)</td>
<td>5(10)</td>
<td></td>
</tr>
<tr>
<td>비판력</td>
<td>0(0)</td>
<td>1(2)</td>
<td>7(14)</td>
<td></td>
</tr>
<tr>
<td>합계</td>
<td>50(100)</td>
<td>50(100)</td>
<td>50(100)</td>
<td></td>
</tr>
</tbody>
</table>

교사들은 국어 교육을 통해 분석력을 가장 신장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표현력, 논리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뒤에 창의력, 비판력도 신장시켜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어 교육이 언어를 통한 표현과 이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해 활동을 통해 분석력을, 표현 활동을 통해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고 교사들이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해와 표현 활동은 사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 지므로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인 논리력, 창의력, 분석력도 국어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는 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논술 능력 중 분석력은 읽기를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읽기 지도를 한 다면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4. 읽기 지도는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그렇다</th>
<th>아니다</th>
<th>무응답</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55</td>
<td>1</td>
<td>0</td>
<td>56</td>
</tr>
<tr>
<td>비율(%)</td>
<td>98.2%</td>
<td>1.8%</td>
<td>0</td>
<td>100</td>
</tr>
</tbody>
</table>

읽기 지도가 논술 작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8.2%로 나타났다. 논술은 글쓰기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논제 확인, 제시문 파악 등의 읽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교사들은 읽기 지도를 한다면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논술은 읽기 지도와 연계 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논술 능력 중 표현력은 쓰기를 통해 향상될 수 있으므로 쓰기 지도를 한다면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5. 쓰기 지도는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그렇다</th>
<th>아니다</th>
<th>무응답</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54</td>
<td>1</td>
<td>1</td>
<td>56</td>
</tr>
<tr>
<td>비율(%)</td>
<td>96.2%</td>
<td>1.9%</td>
<td>1.9%</td>
<td>100</td>
</tr>
</tbody>
</table>

쓰기 지도가 논술 작성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6.2%로 나타났다. 읽기 지도와 마찬가지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논술도 글쓰기이므로 쓰기 지도를 통해 논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논술은 쓰기 지도와 연계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2) 학생 대상 설문 분석

인천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중 남자고등학교 1곳과 여자고등학교 1곳을 선정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93명을 대상으로 논술 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국어 교육과 논술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읽기와 쓰기 교육의 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아홉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필요에 따라 하위 문항을 두었다.

논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논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1. 논술 교육은 필요합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있다</th>
<th>없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554</td>
<td>139</td>
<td>693</td>
</tr>
<tr>
<td>비율(%)</td>
<td>79.9</td>
<td>20.1</td>
<td>100</td>
</tr>
</tbody>
</table>

79.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1-1. 필요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대입전형에 필요하므로</th>
<th>사고력, 표현력 등을 기를 수 있으므로</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358</td>
<td>175</td>
<td>21</td>
<td>554</td>
</tr>
<tr>
<td>비율(%)</td>
<td>64.6</td>
<td>31.7</td>
<td>3.7</td>
<td>100</td>
</tr>
</tbody>
</table>

논술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64.6%의 학생들이 대입전형에 필요하다 것을 선택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논술을 논술고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국어 교육을 통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
논지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2. 국어 수업을 통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있다</th>
<th>없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245</td>
<td>448</td>
<td>693</td>
</tr>
<tr>
<td>비율(%)</td>
<td>35.3</td>
<td>64.7</td>
<td>100</td>
</tr>
</tbody>
</table>

국어 교육을 통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없다는 응답이 64.7%가 나왔다. 이는 교사의 인식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교사는 논술에 필요한 읽기와 쓰기를 국어 교육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국어 교육을 통해 논술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보지만 학생들은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논술 작성을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어 교육이 논술 작성을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어떤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논술 능력을 분석력, 논리력, 표현력, 창의력, 비판력을 나누고 가장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 2-1. 있으면 어떤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볼니까?

<table>
<thead>
<tr>
<th>항목</th>
<th>선택 순서</th>
<th>첫 번째 응답수(비율%)</th>
<th>두 번째 응답수(비율%)</th>
<th>세 번째 응답수(비율%)</th>
</tr>
</thead>
<tbody>
<tr>
<td>분석력</td>
<td>157(64.1)</td>
<td>126(51.3)</td>
<td>64(26.2)</td>
<td></td>
</tr>
<tr>
<td>논리력</td>
<td>40(16.3)</td>
<td>55(22.4)</td>
<td>49(20.0)</td>
<td></td>
</tr>
<tr>
<td>표현력</td>
<td>39(15.9)</td>
<td>34(13.9)</td>
<td>58(23.7)</td>
<td></td>
</tr>
<tr>
<td>창의력</td>
<td>6(2.4)</td>
<td>16(6.6)</td>
<td>26(10.6)</td>
<td></td>
</tr>
<tr>
<td>비판력</td>
<td>3(1.3)</td>
<td>14(5.8)</td>
<td>48(19.5)</td>
<td></td>
</tr>
<tr>
<td>합계</td>
<td>245(100)</td>
<td>245(100)</td>
<td>245(100)</td>
<td></td>
</tr>
</tbody>
</table>

국어 교육을 통해 분석력을 기를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논리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밖에 창의력, 비
판력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의 응답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국어 교육은 논술에 필요한 능력 중 분석력, 표현력, 논리력을 길러 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읽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읽기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읽기 방법에 대한 지도가 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읽기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3.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의 국어 수업 중 읽기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table>
<thead>
<tr>
<th>선택 사항</th>
<th>초등학교</th>
<th>중학교</th>
<th>고등학교 1학년</th>
<th>고등학교 2학년</th>
<th>고등학교 3학년</th>
<th>없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42</td>
<td>68</td>
<td>61</td>
<td>76</td>
<td>105</td>
<td>428</td>
<td>780</td>
</tr>
<tr>
<td>비율(%)</td>
<td>5.4</td>
<td>8.7</td>
<td>7.8</td>
<td>9.8</td>
<td>13.5</td>
<td>54.8</td>
<td>100</td>
</tr>
</tbody>
</table>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읽기 방법을 지도 받았다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는 10%이하이다. 반면에 읽기 방법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읽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급을 읽을 때 필요한 읽기 방법 지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읽기 방법을 지도 받은 학생들은 급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3-1. 급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읽나</th>
<th>보통이다</th>
<th>안 읽나</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93</td>
<td>136</td>
<td>36</td>
<td>265</td>
</tr>
<tr>
<td>비율(%)</td>
<td>35.1</td>
<td>51.3</td>
<td>13.6</td>
<td>100</td>
</tr>
</tbody>
</table>
읽기 방법을 배운 것이 글을 읽을 때 둘다는 비율이 35.1%로 높지는 않지만 보통이�다는 응답에는 도움이 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읽기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글을 읽을 때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읽기 방법이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으므로 논술 작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4. 국어 수업 시간에 읽기 지도를 받으면 논술 작성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원다</th>
<th>안 원다</th>
<th>잘 모르겠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315</td>
<td>77</td>
<td>301</td>
<td>693</td>
</tr>
<tr>
<td>비율(%)</td>
<td>45.5</td>
<td>11.1</td>
<td>43.4</td>
<td>100</td>
</tr>
</tbody>
</table>

읽기 지도가 논술 작성에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처럼 학생들도 읽기 지도가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모르겠다는 응답이 43.4%로 나타난 것은 3번 설문 문항에서 확인한 것처럼 학생들이 읽기 방법을 제대로 교육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논술에 필요한 쓰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글쓰기 경험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쓰기 교육이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어 수업에 글을 쓸 기회가 얼마나 있는지, 주로 무엇을 위해 글쓰기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5.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글(200자 이상)을 쓸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거의 없다.</th>
<th>한 학기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일주일에 1-2회 정도</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244</td>
<td>358</td>
<td>54</td>
<td>20</td>
<td>17</td>
<td>693</td>
</tr>
<tr>
<td>비율(%)</td>
<td>35.2</td>
<td>51.7</td>
<td>7.8</td>
<td>2.9</td>
<td>2.4</td>
<td>100</td>
</tr>
</tbody>
</table>
<설문 문항> 5-1. 있다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 사항</th>
<th>수행평가</th>
<th>학습 활동</th>
<th>교과서 내용 요약 (학습 내용 정리)</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372</td>
<td>36</td>
<td>33</td>
<td>8</td>
<td>449</td>
</tr>
<tr>
<td>비율(%)</td>
<td>82.9</td>
<td>8.0</td>
<td>7.3</td>
<td>1.8</td>
<td>100</td>
</tr>
</tbody>
</table>

고등학교 1학년 때 글쓰기 경험은 한 학기에 1~2번 정도가 51.7%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문 문항> 6.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글(200자 이상)을 쓰기 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 사항</th>
<th>거의 없다.</th>
<th>한 학기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일주일에 1~2회 정도</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262</td>
<td>366</td>
<td>39</td>
<td>15</td>
<td>11</td>
<td>693</td>
</tr>
<tr>
<td>비율(%)</td>
<td>37.7</td>
<td>52.7</td>
<td>5.5</td>
<td>2.6</td>
<td>1.5</td>
<td>100</td>
</tr>
</tbody>
</table>

<설문 문항> 6-1. 있다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 사항</th>
<th>수행평가</th>
<th>학습 활동</th>
<th>교과서 내용 요약 (학습 내용 정리)</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358</td>
<td>39</td>
<td>26</td>
<td>8</td>
<td>431</td>
</tr>
<tr>
<td>비율(%)</td>
<td>83.0</td>
<td>9.1</td>
<td>6.1</td>
<td>1.8</td>
<td>100</td>
</tr>
</tbody>
</table>

고등학교 2학년 때 글쓰기 경험은 1학년 때처럼 한 학기에 1~2번 정도가 52.7%로 가장 많았다. 글쓰기 경험도 1학년 때처럼 대부분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문 문항> 7.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글(200자 이상)을 쓰기 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 사항</th>
<th>거의 없다.</th>
<th>한 학기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일주일에 1~2회 정도</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335</td>
<td>300</td>
<td>33</td>
<td>15</td>
<td>10</td>
<td>693</td>
</tr>
<tr>
<td>비율(%)</td>
<td>48.3</td>
<td>43.2</td>
<td>4.8</td>
<td>2.2</td>
<td>1.5</td>
<td>100</td>
</tr>
</tbody>
</table>
<설문 문항> 7-1. 있다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 사항</th>
<th>수행평가</th>
<th>학습 활동 줄이</th>
<th>교과서 내용 요약 (학습 내용 정리)</th>
<th>기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278</td>
<td>27</td>
<td>38</td>
<td>15</td>
<td>358</td>
</tr>
<tr>
<td>비율(%)</td>
<td>77.7</td>
<td>7.5</td>
<td>10.6</td>
<td>4.2</td>
<td>100</td>
</tr>
</tbody>
</table>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글쓰기 경험이 한 학기에 1-2번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 학기에 1-2번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고등학교 1·2학년과 같으나 응답률이 낮아졌다. 반면에 글쓰기 경험이 거의 없다는 비율이 고등학교 1·2학년보다 10%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원수록 글쓰기 경험이 더욱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글쓰기 경험이 수행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 글쓰기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국어 수업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어 수업에서 글쓰기 경험이 거의 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글쓰기 방법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을 확률이 있다. 실제로 글쓰기 방법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8.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의 국어 수업 시간 중 글쓰기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table>
<thead>
<tr>
<th>선택 사항</th>
<th>초등학교</th>
<th>중학교</th>
<th>고등학교 1학년</th>
<th>고등학교 2학년</th>
<th>고등학교 3학년</th>
<th>없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171</td>
<td>221</td>
<td>117</td>
<td>79</td>
<td>67</td>
<td>304</td>
<td>959</td>
</tr>
<tr>
<td>비율(%)</td>
<td>17.8</td>
<td>23.0</td>
<td>12.3</td>
<td>8.2</td>
<td>7.0</td>
<td>31.7</td>
<td>100</td>
</tr>
</tbody>
</table>

글쓰기 방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조금 이루어지고 있으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필요로 지도 방법을 배우는 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이는 글쓰기 경험이 교과서에 정해진 것과 연관할 수 있다. 글쓰기 경험이 적어지므로 글쓰기 방법을 지도할 기회도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해 국어 수업을 운영한다면 논술 작성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설문 문항> 9. 국어 수업 시간에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글쓰기 활동을 자주 한다면 논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table>
<thead>
<tr>
<th>선택사항</th>
<th>된다</th>
<th>안 된다</th>
<th>잘 모르겠다</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응답수</td>
<td>481</td>
<td>45</td>
<td>167</td>
<td>693</td>
</tr>
<tr>
<td>비율(%)</td>
<td>69.4</td>
<td>6.5</td>
<td>24.1</td>
<td>100</td>
</tr>
</tbody>
</table>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9.4%로 나타났다. 논술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보다 10배 정도 높은 것이므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교사들처럼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글쓰기 활동을 자주 한다면 논술 작성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설문 조사 분석 결과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논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읽기와 쓰기가 논술과 연관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이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여기고 있으므로 공교육 안에서 논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국어 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읽기와 쓰기가 논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국어 수업에서 이것을 반영하여 논술 작성이 도움이 되도록 읽기와 쓰기를 교육한다면 학생들의 논술 능력 향상을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읽기와 쓰기 교육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읽기 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과반 수 이상의 학생들이 읽기 방법을 제대로 지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읽기 교육이 학생들에게 읽는 방법을 지도하고 스스로 글을 읽는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래서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읽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을 통해 쓰기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읽기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글쓰기 방법을 지도 받았다는 학생의 비율이 읽기 방법을 지도 받았다는 학생들보다 조금 많으나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기회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기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 수업에서도 학기에 1-2번 정도 수행평가를 위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보니 글쓰기 자체가 학생들에게 낮은 활동이 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Ⅲ. 국어 수업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

논술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국어 교육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육과 논술은 연계해 지도할 수 있다. 읽기와 쓰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그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국어 교육은 대부분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교과서를 바탕으로 국어 수업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은 평가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수행평가를 통해 논술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1.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교과서의 지문은 예전부터 국어 교사들에게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보니 학습목표를 위해 활용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지문 자체를 교수·학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국어 수업도 지문과 관련된 지식적인 요소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교사는 지문의 중요 내용을 전별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지문을 읽기는 하지만 대중 의미만 파악할 뿐 스스로 분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지문 분석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들었던 국어 수업 진행 방식의 대부분이 교사가 중심이 되어 설명하고 학생은 그것을 이해하고 중요한 내용을 필기하는 것이다. 보니 학생들은 자신들이 지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지문 분석만이 절대적인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국어 수업에서 반복하다 보니 학생들은 국어 교과서를 통해 만든 지문을 읽으면서도 글을 스스로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어 교과서에 설린 지문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년별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여겨진 선정된 자료들이다. 그러므로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과서 지문보다 학습목표달성에 더 적합한 자료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업에서 교과서 지문이 신성시 되는 경우가 많다. 교사도 지문을 꼭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학생도 꼭 배우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그러다보니 교과서 지문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은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으로 여긴다. 즉 비판적 읽기가 존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논술고사는 제시문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읽을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런 읽기 방식에 익숙하지 않고 더욱이 논술고사에서 출제되는 제시문의 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제시문 독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제시문이 없다하더라도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에 바탕이 되는 것이 분석하고 비판하는 힘으로써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논술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지문을 학생들이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그것이 논술에 필요한 읽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교사는 지문을 분석해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문을 읽는 단계를 분석적 읽기, 비판적 읽기로 나누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국어(상)의 1단원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의 첫 번째 소단원 지문인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1) 분석하며 읽기

(1)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글의 이해는 배경지식과 연관성이 높다.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는 글을 보
먼 학생들이 잘 경험하지 못하는 분야를 다룬 경우가 많다. 이처럼 배경지식의 유무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지므로 교사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도 도와주어야 한다.

글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도록 한다. 제목은 글의 중심 소재나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목을 통해 글의 핵심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하면서 제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대답을 유도한다.

[표 III-1] 배경지식 활성화를 위한 질문과 대답 예시

<table>
<thead>
<tr>
<th>⊙ 글의 제목은 무엇인가?</th>
</tr>
</thead>
<tbody>
<tr>
<td>← 황소 개구리와 우리말이다.</td>
</tr>
<tr>
<td>⊙ 황소 개구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td>
</tr>
<tr>
<td>← 다른 개구리들에 비해 몸집이 큰 개구리이다.</td>
</tr>
<tr>
<td>← 황소 옆을 소리를 내는 개구리이다.</td>
</tr>
<tr>
<td>⊙ 황소 개구리는 우리나라 개구리인가요?</td>
</tr>
<tr>
<td>←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경우 교사가 정답을 얘기해 준다.)</td>
</tr>
<tr>
<td>← 외국에서 들어온 개구리이다.</td>
</tr>
<tr>
<td>⊙ 우리말의 의미는 무엇인가?</td>
</tr>
<tr>
<td>←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국어이다.</td>
</tr>
<tr>
<td>⊙ 제목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나?</td>
</tr>
<tr>
<td>← 황소 개구리와 우리말을 중심으로 들 사이의 관계 또는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td>
</tr>
</tbody>
</table>

이런 과정을 통해 글과 관련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떠올린 내용을 글과 연관해 읽어 보도록 지도한다.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교사가 자료를 제시해 주거나 설명을 덧붙여 주여 학생들이 배경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2) 글의 내용 이해하기

학생들에게 글을 읽히고 글의 내용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글을 읽으라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읽기 때문에 글의 내용에 집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글에 집중하면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글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거나 요약하기를 할 수 있다.

① 질문하기

교과서 학습 활동에도 글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놀음을 있으므로 그 것을 활용하면서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을 추가로 제시한다. 질문은 학생들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확인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자료로 만들어 읽는 동안 풀어 둔다. 글을 다 읽은 후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을 발표한다고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교과서의 지문을 질문을 바탕으로 분석하며 읽도록 한다.

학생들의 지문 읽기가 끝나면 질문에 대한 정답을 개인적으로 발표를 시키거나 전체적으로 대답을 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읽기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발표가 잘못되었거나 미흡할 경우 그렇게 파악한 이유를 몇어 몇 후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읽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면서 글을 읽을 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읽어야 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표Ⅲ-2] 교과서 지문 분석을 위한 질문과 대답 예시

<table>
<thead>
<tr>
<th>질문</th>
<th>대답</th>
</tr>
</thead>
<tbody>
<tr>
<td>글의 종류는 무엇인가?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td>
<td>자신의 주장은 드러내고 있으므로 논설문이다.</td>
</tr>
<tr>
<td>필자의 균등할 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td>
<td>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d>
</tr>
<tr>
<td>필자는 설득력을 높이기 어떤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td>
<td>유럽으로 유럽산 쟁구래기 가족중인 참새보다 흔한 새가 된 미국의 상황과 유럽산 황소 개구리와 불루갈리 토종인 참개구리와 물고기들 을 물아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통해 영어가 우리말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td>
</tr>
<tr>
<td>필자는 우리말과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다른 대상에 비유하고 있나?</td>
<td>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제시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하면 효과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td>
</tr>
<tr>
<td>필자는 영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td>
<td>영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배우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어만을 중시하는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td>
</tr>
</tbody>
</table>

② 요약문 작성하기

학생들이 글을 분석하면서 읽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요약하기를 활용할 수 있다. 요약하기를 통해 학생들은 글의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가리내고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가리내어 글쓰기의 의도에 가장 근접하게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분석적 읽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학생들에게 요약하기를 시키면 단순히 중심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거나
글의 길이만큼 줄여서 다시 쓰는 경향이 있다. 요약하기가 결론과 전제, 또는 주장과 근거를 찾아내는 논리적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약하기 활동을 하기 전에 요약하는 방법을 지도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요약하는 방법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최인영(2007)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지도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요약문을 작성하고 나면 제대로 되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사는 요약하기의 단계에 따른 질문을 다시 되어 주고 학생들이 그것에 대답을 하게 한다. 학생들의 대답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주고 자신들이 쓴 것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린 내용이 드러나게 요약문을 작성했으면 제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고 학생들끼리 요약한 것을 바꾸어 평가해 보도록 한다. 학생들의 평가가 끝나면 교사는 모범이 되는 요약문의 예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작성한 요약문과 비교해 요약하기 활동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표Ⅲ-3  요약하기의 지도 예시

- 필자는 무엇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나?
- 우리말에 관심을 갖고 있다.

- 필자가 이 글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
-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말을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필자는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어떤 근거를 들고 있나?
- 유업종간 유연성 저력기지가 토종인 참새보다 혼한 세가 된 미국의 상황과 유업종간 황소 개구리와 물루길이 토종인 참개구리와 물고기들 을 물어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통해 영어가 우리말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 위의 단계에서 대답할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200자로 요약해 보시오.
- 미국 중심의 세계화로 영어가 중요해지면서 우리말보다 영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토종인 참개구리, 토종 물고기, 참새가 유업종간 황소개구리와 물루길이 유럽 산 저력기지에게 물러 점점 자취를 감추는 것처럼 영어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말도 이들처럼 위축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를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말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 지문 비판하며 읽기

국어 수업의 읽기 지도는 대부분 지문을 읽은 후 그것과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하고 학습 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나 보니 학생들은 교과서 지문을 비판적으로 읽을 기회를 찾지 못한다. 교사들도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문을 분석할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보니 학생들에게도 비판적 읽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논술에서 비판적으로 읽으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비판
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걸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비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지문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교사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분석적 읽기의 단계가 끝나면 학생들이 지문을 비판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 다. 요구하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충분하면 수용한다.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잘못되었을 경우는 직접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언급해 주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표III-4] 비판적 읽기의 질문과 대답 예시

-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동의한다. 영어와 우리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 영어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말을 소홀하게 여긴다. 지금이야 우리말을 쓰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말이 존재하고 있지만 영어를 통치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말보다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져 미래에는 우리말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말이 우리나라의 언어이기 때문에 무조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편협한 사고라 할 수 있다. 언어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영어가 우리말보다 필요성이 더 커진다면 당연히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입장은 언어를 민족의식과 너무 연관시키는 것 같다.
○글쓰기에 제시한 근거는 타당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다. 추상적일 수 있는 영어와 우리말의 관계를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비유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타당성이 없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물을 예를 들고 있지만 언어와 생물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차라리 외국어를 자국어보다 중요하게 여기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다가 자국어가 소멸해 버린 예를 찾아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그 밖에 비판할 여지는 없다?

없다.

'영어 공용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것은 대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교과서 지문을 비판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근거를 들어 비판함으로써 주장할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또한 글을 평가해 볼 수로서 좋은 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분석적 임기와 비판적 임기는 교과서에 실린 모든 지문에 적용할 수 있다. 글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임기 지도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과서의 지문을 학생 스스로 분석·비판하여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지문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필요한 질문이나 활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변형한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는 지문이 없는 단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지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스스로 지문을 분석·비판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한다면 임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분석력, 비판력, 논리력 등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런 수업에 학생들이 익숙해지면 교사가 던지는 질문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하계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글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있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글을 읽을 때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학생들이 논술 작성에 어려움을 덜 느낄 것이다.

2. 교과서 학습 활동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학생들이 논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요인 중 하나는 글쓰기라는 점이다. 학생들이 글쓰기에 부담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평소에 글쓰기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납득하려니 글쓰기가 자체가 함들게 느껴지고 특히 논술처럼 조건이 있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요구할 경우에는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된다. 국어 수업은 쓰기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수업 전도 등을 고려하다 보면 수업 중에 글쓰기 기회를 주기 힘들고 대부분의 평가가 객관식 평가로 이루어지다보니 쓰기 능력 자체를 평가하는 경우도 적어 쓰기는 국어 수업에서도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니보니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로 많이 써 보어야 한다. 글쓰기에 필요한 글쓰기 방법도 글을 쓰는 과정 안에서 익힐 수 있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배운다고 학생들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노력해야 한다.

국어 수업 중에 쓰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습 활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은 문제를 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해결하도록 요구한다. 주관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한다. 말하기를 하는 학습 활동도 수업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업에서는 발표할 내용을 쓰게 한 후 그것을 바탕으로 몇 명만 발표하도록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학습 활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짧은 글이지만 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줄 수 있고 이를 통해 논술 작성에 필요한 쓰기 능력도 신장할 수 있다.
1) 문제 분석하기

학습 활동은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습 활동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대충 읽은 후 자신의 생각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영등한 답을 제시하게 된다. 이는 논술고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논술에서 문제에 해당되는 논제는 논술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준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논제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논술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논술문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감점이 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술 작성 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이 논제분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도 평상시에 문제를 정확히 읽고 요구사항을 파악해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학습 활동을 할 때마다 우선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요구사항을 분석하게 한다. 그날 학생들보고 마르고 하면 대충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문제를 읽으면서 요구사항에 밀줄을 갖게 한다. 학생들이 정리한 요구사항을 말해 보게 한 후 그것을 철원에 적는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파악한 요구사항과 비교해 보라고 한 후 맞은 사람은 다음에도 그대로 하면 되고, 불편 사람은 어떤 면을 소홀히 했는지 점검해 보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2) 답안 작성과 평가하기

문제 분석이 끝나면 그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게 한다. 학습 활동은 '생각해 보자, 발표해 보자, 말해 보자, 이야기해 보자, 글로 써 보자, 상상해 보자, 고쳐 써 보자, 정리해 보자'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지만 언어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답안을 작성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드러나도록 하고 반드시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글은 문장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문장의 체대로 완성하지 못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없다. 학생들에게 학습 활동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만을 나열한다. 답안 고르면 되는 객관식 시험에 익숙하다보니 문장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다. 또한 문장으로 쓰기 위해서는 단어를 나열하는 것보다 길게 작성해야 하고 비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사항을 많으므로 귀찮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으로 학생들은 문장 쓰기를 기피하는 것이다. 그러다보
니 많은 분량의 글을 쓰야 하는 논술이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물론 평상시에 학생들이 말을 할 때 문장을 사용한다. 하지만 말은 글보다는 성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단어만으로도 소통이 될 수 있다. 그러고 문장이 잘못 되었다 하더라도 상황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보니 말을 통해 문장을 구사하지만 글이 필요로 하는 정확한 문장을 잘 구사하지 못한다.

짧은 문장이라도 계속 써 바야 문장력이 들 수 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편의 글도 완성할 수 있다. 그리므로 학습 활동을 할 때 문장으로 반드시 작성하게 함으로써 문장 쓰기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답안을 작성할 때 자신의 생각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드러나도록 문장을 작성하게 하는 것은 논술에서 필요로 하는 논리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력은 주장(의결)에 대해 오류를 발생하지 않고 타당한 근거(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로 따로 논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기 보다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논리력을 길러갈 수 있다.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하면 쓴 답안을 스스로 읽어 보고 평가하도록 한다. 요구 사항을 반쪽하고 있는지, 메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문장의 표현이 잘못된 곳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을 경우 고치도록 한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교사는 학생들에게 답안을 발표하게 한다. 학생들의 발표를 교사와 학생들이 경청하면서 답안을 평가한다. 교사가 곧바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우선 다른 학생을 지목해 평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할 경우 학생들은 평가를 해야 하므로 친구들의 발표를 집중해 들을 수 있고 평가를 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비판력을 길러갈 수 있다. 그 이후에 교사가 총평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답안을 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문장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과 표현력을 갖출 수 있다.
[표Ⅲ-6] 답안 작성하기와 평가하기의 지도 예시

○ 학습 활동
☞ 지금까지 읽었던 문학 작품 중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경우와 그 때의 감정을 발표해 보자.

○ 답안 작성하기
☞ 중학교 때 읽었던 소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소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 자기 평가하기
☞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자세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 발표하기
☞ 중학교 때 읽었던 소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소녀가 좋아하던 감정을 갖지만 결국 소녀가 죽어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항상 행복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도리어 큰 슬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 학생 평가
☞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고 있어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다.

○ 교사 평가
☞ 천구가 평가한 대로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답안이다. 다만 비극적으로 끝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것보다 특정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감정을 이야기했으면 듣는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급 작성하기

문장은 급을 이루는 하위 구성 요소이므로 문장 쓰기를 바탕으로 급을 작성할 수 있어야 글쓰기 능력을 갖춘 것이다. 한편의 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고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쉽게 글을 작성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글쓰기에 필요한 방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객관식 평가를 종사하는 학교 현실에서 글쓰기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에서는 글쓰기 능력을 중요하다.
다. 이것을 통해 논술고사를 통해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글쓰기를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국어 수업은 글쓰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과서 학습 활동 중에는 한 편의 글을 작성하는 활동들이 있다.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이 반드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경험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글을 쓸 수 있는 학습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table>
<thead>
<tr>
<th>표 3-7</th>
<th>학습 활동 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장만득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글로 쓰 보자.</td>
<td></td>
</tr>
<tr>
<td>- 자신이 만일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상상하여 글로 쓰 보자.</td>
<td></td>
</tr>
<tr>
<td>- 필자의 태도를 반영하여 현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 보자.</td>
<td></td>
</tr>
<tr>
<td>- 평소의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중심으로 부모님 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입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신의 독립 선언서를 쓰 보자.</td>
<td></td>
</tr>
</tbody>
</table>

글을 쓰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을 고려하고 그에 따라 내용을 생성하고 전달하려는 의도를 잘 살리기 위해 내용을 조직한다. 그리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 문장을 쓰고 단락을 구성하고 한 편의 글로 완성한다. 이런 과정에는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므로 글쓰기를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준다.

논술에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적인 글쓰기가 아니라 논술에서 필요한 논리력은 길리주기 허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술에서 요구하는 논리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논리학에서 다루는 학문적인 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장이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면 논리적이라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글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글들은 독자를 설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독자가 생각에 동의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다. 이런 과정 자체가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쪽 논술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글을 자주 쓰는 경험을 통해 논술에 필요한 논리력과 글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글쓰기를 할 때 대부분 교사들은 아무런 지도도 없이 학생들에게 글을 쓰라고 요구한다. 이런 경우 학생들은 종이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다.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글쓰기 과정에 필요한 원리를들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교육하도록 하고 그것을 교과서에 반영하였기 때문 에 학생들은 이론적인 교육은 받았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 글을 작성할 때 적용해야 하는데 그릴 기회가 적다 보니 원리를 실제로 학습하지 못한 것이 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쓸지 말고 학생들이 글쓰기에 필요한 단계에 따라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사가 안내를 한 후 학생들이 그것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을 하는 동안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에게 도움을 준다. 구체적인 지 도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계획하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완성된 글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 미리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계획하기이다. 계획하기를 하지 않으면 생각 나는 대로 쓰게 되어 내용도 두서가 없어지고 체계도 갖추지 못해 글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 글을 작성하기 위해 고려했던 사항이 무엇인지지를 결론 한다. 대담을 할 경우 적절한 것은 질문에 적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유를 설명한 후 다른 대담을 유도한다. 학생들의 대담을 통해 계획하기에 필요한 질문들을 정리해 제시해 준다. 계획하기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의 예들은 다음과 같다.
[표Ⅲ-8] 계획하기의 질문 예시

<table>
<thead>
<tr>
<th>질문</th>
<th>단어</th>
<th>설명</th>
</tr>
</thead>
<tbody>
<tr>
<td>1.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td>
<td></td>
<td></td>
</tr>
<tr>
<td>2. 독자는 누구이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td>
<td></td>
<td></td>
</tr>
<tr>
<td>3. 어떤 형식의 글을 써야 하는가?</td>
<td></td>
<td></td>
</tr>
<tr>
<td>4. 글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td>
<td></td>
<td></td>
</tr>
<tr>
<td>5. 글은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야 하는가?</td>
<td></td>
<td></td>
</tr>
<tr>
<td>6. 글의 문제와 주된 서술 방법은 무엇이 좋겠는가?</td>
<td></td>
<td></td>
</tr>
<tr>
<td>7. 글의 구조는 어떻게 작게 조작해야 하는가?</td>
<td></td>
<td></td>
</tr>
<tr>
<td>8. 그 외에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여기서 제시한 질문들은 대표적인 것이 아니다. 글을 쓰는 데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만 학생들이 사용하면 되는 것을 알려 준다. 더불어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고 언제나 수정될 수 있는 것을 익숙시켜 준다.

(2) 내용 생성하기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쓸 거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을 경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글을 잘 쓴다.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가 정해져야 한다. 주제라는 말 자체를 어려워하면 글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어 본다. 그리고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단 주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주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쓸 내용을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주제를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머니의 사랑은 위대하다.’처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제가 정해지면 그것을 완면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등이 있다. 두 가지를 모두 제시해 주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다. 두 방법 모두 주제에만 초점을 두고 떠오르는 것을 모두 쓰도록 지도한다. 마인드맵과 브레인스토밍의 예는 다음과 같다.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의 학업 성적은 그들의 노력과 공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3) 개요 작성하기

개요 작성은 글쓰기를 하기 전에 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 학생들은 개요 작성은 거의 하지 않는다. 개요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개요를 작성하면 주제를 체계적으로 드러낼 수 있고 글쓰기의 시간도 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이 쫓겨나가는 논술에서는 개요 작성은 꼭 필요하므로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개요에는 핵심적인 단어만 나열하는 화체 개요와 중심 문장을 쓰는 문장 개요가 있다. 문장 개요의
문장들은 글쓰기의 할 때 중심 문장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이면 문장 개요를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글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처음-중간-끝’으로 나누나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이 쓰고자 하는 글의 성격과 주제에 맞게 구성하도록 한다. 문장 개요의 예는 다음과 같다.

[표 III-9] 문장 개요의 예시

<table>
<thead>
<tr>
<th>주제 : 셀강 살리기 운동도 좋지만 수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th>
</tr>
</thead>
<tbody>
<tr>
<td><strong>&lt;서론&gt;</strong></td>
</tr>
<tr>
<td>최근 ‘셀강 살리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td>
</tr>
<tr>
<td>→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환경보호운동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주부를 대상으로 수돗물 생산과정을 전화하게 하고 주부 백일장에 개최하고 있다고 한다.</td>
</tr>
<tr>
<td>→ 경기도에서는 두 곳의 셀강에서 하천정화캠페인을 벌인다고 한다.</td>
</tr>
<tr>
<td><strong>&lt;본론&gt;</strong></td>
</tr>
<tr>
<td>‘셀강 살리기 운동’은 상수원 보호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td>
</tr>
<tr>
<td>→ 상수원의 오염 방지는 석수의 위생과 일정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td>
</tr>
<tr>
<td>그러나 ‘셀강 살리기 운동’이 간과하는 면이 있다.</td>
</tr>
<tr>
<td>→ 예를 들어 소양강에는 수많은 ‘가두리’가 있는데, 이것은 상수원 오염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td>
</tr>
<tr>
<td>→ 춘천 호숫가에도 여러 개의 개개인들이 있는데,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부근 호숫가를 오염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td>
</tr>
<tr>
<td><strong>&lt;결론&gt;</strong></td>
</tr>
<tr>
<td>‘셀강 살리기 운동’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수질 오염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td>
</tr>
</tbody>
</table>

개요작성이 끝나면 계획하기에 따라 세대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지도한다.
(4) 표현하기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한다. 논술은 글을 시간 내에 끝내야 하므로 시간에 맞춰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글의 분량을 고려해 작 성할 시간을 안내한다.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더 주도록 한다.

(5) 고쳐쓰기

고쳐쓰기는 계획한 대로 글이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글 전체, 문단, 문장 수준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표현하기가 끝나면 글이 다 끝난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고쳐쓰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글은 고쳐쓰기를 통해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시킨다.

[표 III-10] 고쳐쓰기의 단계와 기준

<table>
<thead>
<tr>
<th>글 수준</th>
</tr>
</thead>
<tbody>
<tr>
<td>-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가?</td>
</tr>
<tr>
<td>- 불필요한 내용이나 빠진 내용은 없는가?</td>
</tr>
<tr>
<td>- 각 문단의 연결은 자연스러운가?</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문단 수준</th>
</tr>
</thead>
<tbody>
<tr>
<td>-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생각이 담겨 있는가?</td>
</tr>
<tr>
<td>- 품의적 문장이 충분히 갖추어 있는가?</td>
</tr>
<tr>
<td>-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문장과 단어 수준</th>
</tr>
</thead>
<tbody>
<tr>
<td>- 듯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장은 없는가?</td>
</tr>
<tr>
<td>- 어법에 어긋나는 문장은 없는가?</td>
</tr>
<tr>
<td>- 불필요한 표현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가?</td>
</tr>
<tr>
<td>-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없는가?</td>
</tr>
<tr>
<td>- 맞춤법과 어어쓰기는 바르게 되었는가?</td>
</tr>
</tbody>
</table>
(6) 상호 첨삭하기

학생들은 첨삭 과정을 통해 글의 평가 기준을 알 수 있고 자신이 작성한 글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부분 첨삭은 교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런 경우 첨삭의 수준이 높을 수 있으나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줘야 하므로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첨삭을 거려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다. 그래서 글쓰기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다보니 학생들의 쓰기 능력이 높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의 첨삭을 해보는 상호 첨삭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평가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평가 기준만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첨삭을 하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가 우선 시범을 보여 준다. 그리고 첨삭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글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학습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첨삭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동들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첨삭이 끝나면 학생들이 그것을 반영해 다시 글을 작성하게 한다.

[표III-11] 상호 첨삭 기준 예시

<table>
<thead>
<tr>
<th>영역</th>
<th>평가 내용</th>
<th>상</th>
<th>중</th>
<th>하</th>
</tr>
</thead>
<tbody>
<tr>
<td>내용면</td>
<td>학습 활동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는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작성한 개요에 맞게 진술했는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단락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단락의 중심 내용은 잘 드러나 있는가?</td>
<td></td>
<td></td>
<td></td>
</tr>
<tr>
<td>형식면</td>
<td>단락 구분이 제대로 되었는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어색한 문장은 없는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단어 사용은 적절한가?</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맞춤법, 품어쓰기는 제대로 지켰는가?</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수업 시간을 활용해 글을 쓸다는 것은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현대의 상황에서 당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국어 수업에서 조차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쓰기 능력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 쓰기 능력은 논술 작성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글은 의사표현하는 수단이며 내구라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국어 교사는 글쓰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필요한 지도를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혼자서도 글을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논술이 글쓰기라는 이유만으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글쓰기 자체가 사고의 과정이므로 글을 자주 쓰므로써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도 기를 수 있다.

3. 수행평가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하려는 목적 이 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정수화하여 서열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학교에서 평가한 결과가 상급 교육 기관에 진학하는데 활용되고 있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는 평가는 대부분 객관적 평가이다. 객관적 평가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 안에서 주어진 답만 찾아야 하므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 답안 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보니 주어진 대로만 사고하는 수동적 사고를 한다. 또한 정답이 되는 번호만 고르면 되니까 글로 표현할 필요도 없다. 이런 평가가 반복되다 보니 학생들은 논술에 필요한 사고력과 표현력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

객관적 시험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갑자기 난이도가 있는 글을 독해하고 많은 분량의 글을 쓰라고 요구하는 논술교사는 어렵게 여겨 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논술을 쓰는 경험을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이다. 수행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이 알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답을 작성(구성)하거나,
발표하거나,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요구하며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지식이나 절차를 아는 차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이나 절차를 바탕으로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인터활동을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수행평가를 실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는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토론법, 구술 평가, 면접법, 연구 보고서법, 자료철(포트폴리오) 등을 들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수행평가의 방법 중 논술형 평가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논술을 경험하게 해 줄 수 있다. 논술형 평가는 수업 시간에 배운 익기와 쓰기의 방법을 활용해 작성해야 함으로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정도를 파악하고 교수-학습에 다시 피드백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논술형 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지문은 교과서의 지문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평가는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과서 지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도 적어지고 논술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줄일 수 있다. 교과서의 지문은 대부분 논술 제시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글쓰기가 문제의 발견이며 해결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글에는 문제로 인식할 만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이런 둥을 찾아내어 논술 문제를 만들 면 된다. 교과서 지문과 더불어 외부 지문도 함께 활용하면 학생들의 독해 능력도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자료를 비교-분석하는 힘도 길러주어 더욱 효과적이다. 여기서는 교과서 지문과 외부 지문을 활용한 논술형 시험 실시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논술형 평가 실시

현재 교육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평가시기와 함께 수행평가로 논술문 작성할 한다는 것을 안내한다. 다음에 논술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논술형 평가는 실제 논술고사처럼 작성 시간을 정해 준다.

[논술형 평가 예시]

[논제] (가)와 (나)는 ‘영어 공용화’에 대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필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핵심 논지를 요약하고, 이를 참고해 ‘영어 공용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50자) <작성시간: 60분>

(가) 요사이 우리 사회는 터진 못물처럼 마구 흘리드는 외래 문명에 정성을 차리지 못할 기진이다. 세계화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얼마 전 영어를 야제 공용어로 채택하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 문화 인류학자들은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대부분의 언어들이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예측한다. 언어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 언어로 세운 문화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토록 급가지를 갖고 있는 우리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짐무리 대원군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타 문명의 유일을 깎을 길은 없다. 어떤 문명들은 서로 만났을 때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아끼지 않은 문명은 외래 문명에 턱받을 빠졌기보다 말 것이라는 예측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내가 당당해야 남을 수용할 수 있다.

영어만 잘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은 오래된 아담법석이다. 한술 더 빨 일본을 따라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주장이 설혹같게 들리고 있다. 영어는 때문에 나를 것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자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영어를 들려오는 인간 우리 개구리들을 들보지 않은 체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물 또다시 벽하는 것이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세 씩매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황소개구리의 황소 음을 같은 소리에 익숙해져 참개구리의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 최재철,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국어 교과서 14쪽~18쪽

(나) 이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결론이다. 아무리 영어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국어를 버리다니! 그러나 음직일 수 없는 사실들과 엉뚱한 논리는, 조선어를 쓰는 한, 우리의 국제어를 세대로 쓸 수 없고 그래서 큰 패닉을 앓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런 패닉은 이미 무척 크고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유학 가정 영어 하나만 세대로 배워 외도 성공한 것이라는데 많이 들리지 않은 예기로 받아들이는 사실이나 국내 명문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등생보다 해외에 유학 간 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면 외국 사람들의 심을 알게 되고 영어는 곤잘 하게 된 학생이 귀국해서 오히려 더 좋은 입지를 얻었다는 식의 일화들이 심심찮게 들린다는 사실은 그런 결론을 투박하지 않게 말해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조선어를 단 하나의 공용어로 삼음으로써 우리가 조선어에 독점적 지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이다. 비록 현제의 공용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지만, 헌법과 법률들이 모두 조선어로 쓰여졌고, 모든 하위 법규들은 조선어가 언어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도록 만들었다.

영어 공용은 이런 독점적 언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의사소통에서 정부에 의해 강제된 표준인 조선어와 함께 국제적 표준인 영어가 통용되도록 해서, 소비자들이 시민들이 그 들 가운데 나온 것을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소비자들에게 허여진 선택의 폭을 늘리는 자유화 조치는 언제나 소비자들의 복지를 높린다.

만일 영어 공용을 통해서 영어가 한국의 지배적 언어가 되면, 국제어인 영어가 누리하는 막 경제로부터 한국 시민들도 큰 혜택을 입을 것이다. 언어 장벽이 한국에 끼치 온 손실을 생각하면, 이것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영어 공용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영어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어의 독점적 지위를 헐면서, 시민들이 영어를 쓰고 자식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맞게 영어의 습득과 사용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자연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언어 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 뉴저일, 영어를 공용으로 삼자, 89~91쪽

2) 평가와 첨삭하기

작성이 끝난 논술문은 교사가 평가를 해야 하므로 제출하도록 한다. 대부 분의 수험생도는 교사 평가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경우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기회가 없어지므로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를 위해 논술형 평가를 실시한 후 다음 시간을 이용해 평가와 첨삭을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원본 대신 복사본을 배부한다. 원본을 주면 학생들이 평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사의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사본과 평가 기준표를 같이 배부해 스스로 자신이 작성한 논술문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첨삭하게 한다. 또한 잘 한 점과 보완할 점을 적목하여 자신의 강점점과 피약하게 한다. 평가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논술 문제에 따라 기준을 추가하거나 뺄 수 있다.
[표 III-12] 평가 기준표

<table>
<thead>
<tr>
<th>영역 (배점)</th>
<th>세부 평가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내용 (10점)</td>
<td>논제의 요구를 올바르게 파악했는가?</td>
</tr>
<tr>
<td></td>
<td>논제의 의도에 맞게 논지를 전개했는가?</td>
</tr>
<tr>
<td></td>
<td>내용이 통일되어 있고 주제가 명료한가?</td>
</tr>
<tr>
<td></td>
<td>내용이 재료도 독창적인가?</td>
</tr>
<tr>
<td></td>
<td>다루는 내용은 정확한가?</td>
</tr>
<tr>
<td></td>
<td>주장을이나 의견은 구체적인가?</td>
</tr>
<tr>
<td></td>
<td>주장을이나 의견은 일관성 있는가?</td>
</tr>
<tr>
<td></td>
<td>근거는 적절성과 타당성이 있는가?</td>
</tr>
<tr>
<td>형식 (5점)</td>
<td>논술문의 전체적인 구성이 체계적인가?</td>
</tr>
<tr>
<td></td>
<td>문단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td>
</tr>
<tr>
<td></td>
<td>문장 간의 연결이 자연스러운가?</td>
</tr>
<tr>
<td></td>
<td>주어진 문량을 만족하는가?</td>
</tr>
<tr>
<td>표현 (5점)</td>
<td>단어의 선택이 적절하고 정확한가?</td>
</tr>
<tr>
<td></td>
<td>문장이 이어있고 정확한가?</td>
</tr>
<tr>
<td></td>
<td>원고지 사용범에 맞게 작성했는가?</td>
</tr>
</tbody>
</table>

논술형 수행평가는 학생들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평가하면서 학생들에 의해 논술쓰기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수행평가는 교사 제량으로 횟수와 점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 학기에 2번 이상 논술문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학생들은 논술고사를 낮 설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논술을 적절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문제점 을 발견하고 보완함으로써 논술 능력을 신장을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논술은 대학입학전형의 하나로 도입되고 대학 합격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 되었다. 논술고사가 중요하다고 보니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공교육에서는 논술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논술 교육은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실시할 수 있는 논술 교육 방안이 구준하게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교육에서는 논술 교육은 재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논술시험을 대비하려는 소수의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논술은 소수의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지므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수업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 중 국어 수업은 논술 작성에 필요한 읽기·쓰기 교육을 하므로 연관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논술과 연계해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었다.

II장에서는 논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통해 논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정리하였다. 논술은 참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설득력을 갖춘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글쓰기로 정의하고 논술에 필요한 능력이 읽기 능력, 쓰기 능력, 사고력임을 밝혔다. 논술이 읽기와 쓰기,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면 결국 국어 교육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7차와 개정 국어 교육과정의 읽기·쓰기 교육의 내용체계와 10학년의 학년별 내용을 분석해 보고 논술과 국어 교육은 연계해 지도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현재 읽기·쓰기 지도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그것을 개선한다면 논술 능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교육 상황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읽기·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런 요인으로 학생들은 논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어 수업에서 읽기·쓰기 교육을
강화하면서 논술과 연계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강구하였다. 읽기 능력은 글을 읽는 과정에서 향상되는 것이므로 교과서 지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스스로 읽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의 지문을 학생이 스스로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마련하였다.

쓰기 능력은 읽기와 마찬가지로 글을 쓰는 과정에서 향상되는 것이므로 교과서 학습 활동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명확한 전도를 나가야 한다는 이유로 학습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쓰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 활동을 충실하게 하면서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도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생들이 논술고사를 어려워하는 것은 논술을 써 보지 않은 요인이 있으므로 수행평가를 통해 논술고사를 경험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논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페드백함으로써 논술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논술 교육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특히 국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논술 능력 중 읽기와 쓰기 능력, 사고력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는 국어 교육에서 교육하는 내용이므로 논술 교육만을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읽기와 쓰기 교육을 통합화하면서 논술을 지도 한다면 학생들은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술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지도 방안들은 논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수업과 별개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보니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업 시간을 활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여 현장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도 방안들보다 실효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어 수업 중 읽기와 쓰기에만 중점을 두었고 지도 방안을 학
생들에게 검증해 보지 않아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논술은 읽기·쓰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지만 듣기·말하기·문학·문법과도 언어와 사고가 바탕이 된다는 면에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논의가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입증하기 위한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

논술이 공교육에서 교육되기 위해서는 논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논술을 곧 논술교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의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논술 교육이 주류를 이룬다고 있다. 이런 논술 교육은 수업시간에 실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술 교육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논술은 논술교사가 아닌 교동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글쓰기로 보아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논술 교육의 방향을 설정한다면 현재 논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공교육의 목표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다. 인재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능력에는 논술 능력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논술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논술이 공교육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학교 수업과 연계한 논술 지도 방안은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
참고 문헌

고재현(2007),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교육부(200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대한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2008),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상』, 두산동아.
교육과학기술부(2010), 『국어(하』, 두산동아.
교육부(1998), 『국어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강민철 의(2006), 『생각나무』, 경희고등학교.
김경완(2008), 교과 수업을 통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대행 의(2007), 『논술』, 대한교과서.
김선영(1997), 고등학교 논술교육과 지도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태(2002), 고등학교 논술지도 개선을 위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재진(2000), 논술 쓰기 능력 신장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중신(2007), 국어교육과 통합 교과 논술의 향방, 『국어교육학 연구』 제 29집, 국어교육학회.
김진경(2005), 논술 능력신장을 위한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봉희(2001), 고등학교 논술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영재(1998), 『사고력:이론, 개발과 수업』, 교육과학사.
김해영(2007), 교과서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명환 의(2008),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노호원(2007), 바람직한 논술 교육을 위한 방향성 탐구, 『새국어교육』 제76호, 한국국어교육학회.
박갑수(2000), 『국어표현 · 이해교육』, 집문당.
⿵(2008), 『작문 교육론』, 역락.
⿵(2008), 『독서 교육론』, 박인경.
박영복 의(2001), 『국어과 교수 학습론』, 교학사.
박영민(2001), 쓰기 이론과 쓰기 교육의 대응, 『한국어문교육』 제10집,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박인기(2007), 『논술』, 교학사.
박종덕(2005), 『국어논술 교육론』, 박인경.
⿵(2008), 『국어교육을 위한 통합 국어 논술 교육학』, 한국문화사.
배인선(2000), 고등학교 국어 논술 지도 및 평가 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종철(2005), 국어과교서를 활용한 논술교육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응희(1996), 논술문의 오류 분석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성건(2006), 고등학생 논술 설계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래(2005), 사과교육과 공교육 현장에서의 논술교육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국향(2009), 과정 중심 글쓰기를 통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규순(2006), 과정 중심 논술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기행(1999), 고등학교 논술 지도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삼형 의(2000), 『국어교육학과 사고』, 역락.
이용숙(2008), 교과 학습과 함께 하는 논술지도 방법, 『열린교육실험연구』
11호, 덕성여자대학교.
이준호(1999), 논술문의 논리적 오류 지도 방법, 이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형근 (2003), 논술교육을 위한 쓰기 영역의 지도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윤희 (2008), 논술 클립 활용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인정 (2001), 중·고등학교 논술의 효율적 지도 및 평가 방안의 모색,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영주 (2007), 고등학교 논술 수업 설계와 교사 인식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건숙 (1995), 『논술교육론』, 박이정.
윤미옥 (2004), 소설 텍스트를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특별시교육청 (2007), 『논술교육동아리 선생님을 위한 통합논술지도 길라잡이』, 교육인적자원부.
서정혁 (2008), 『논술 교육, 읽기가 열쇠다』, 커뮤니케이션북스.
성기수 (2007), 『글쓰기 교육과 논술』, 금ترو오.
정기철 (2003), 『논술교육과 토론』, 역락.
정인수 (2007), 인문계 고등학교 학년별 논술 지도 사례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지웅 (2007), 논술교육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명철 (2009), 자기 결론 생성하기를 활용한 논술 수업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솔임 (1998), 논술지도의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인영 (2007), 『국어 시간에 논술 가르치기』, 나라말.
한철우 외 (2004), 『국어교육학 원론』, 박이정.
황영진 (2008),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통합논술 뛰어넘기』, 나라말.
황은영 (2008), 논술에서 제시문 활용양상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록 1

교사와 학생 질문지

설문지(교사용)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조사자의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 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논술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없다.

2. 학생들이 논술문을 작성할 때 어떤 것을 어려워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  2)  3)  
   ① 글쓰기 자체  ② 제시문 내용 파악  ③ 논제 파악  
   ④ 논리적 전개  ⑤ 비판적 사고  ⑥ 창의적 사고

3. 국어 교육을 통해 논술 작성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 있다면 어떤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  2)  3)  
   ① 분석력  ② 논리력  ③ 표현력  ④ 창의력  ⑤ 비판력

4. 읽기 지도는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쓰기 지도는 논술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조사자의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의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연구 자료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논술 교육은 필요합니까?
- 필요하다.  
- 필요 없다.

### 1-1. 필요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대입전형에 필요하므로  
-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 기타

### 2. 국어 교육을 통해 논술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있다.  
- 없다.

#### 2-1. 있다면 어떤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고 보면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  
2)  
3)  
- 분석력  
- 논리력  
- 표현력  
- 창의력  
- 비판력

### 3.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의 국어 수업 중 얻기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학년  
- 고등학교 3학년  
- 없다.

#### 3-1. 있다면 글을 읽을 때 도움이 됐습니까?
- 도움이 된다.  
- 보통이다.  
- 도움이 안 된다.

### 4. 국어 수업 시간에 읽기 지도를 받으면 논술쓰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 잘 모르겠다.
5.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글(200자 이상)을 쓰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① 거의 없다. ② 한 학기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1-2회 정도 ⑤ 기타(  )
5-1. 있다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① 수험평가 ② 학습 활동 품이 ③ 교과서 내용 요약(학습 내용 정리)
   ④ 기타(  )

6. 고등학교 2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글(200자 이상)을 쓰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① 거의 없다. ② 한 학기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1-2회 정도 ⑤ 기타(  )
6-1. 있다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① 수험평가 ② 학습 활동 품이 ③ 교과서 내용 요약(학습 내용 정리)
   ④ 기타(  )

7. 고등학교 3학년 국어 수업 시간에 글(200자 이상)을 쓰기 기회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① 거의 없다. ② 한 학기에 1-2회 정도 ③ 한 달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1-2회 정도 ⑤ 기타(  )
7-1. 있다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① 수험평가 ② 학습 활동 품이 ③ 교과서 내용 요약(학습 내용 정리)
   ④ 기타(  )

8.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의 국어수업 시간 중 글쓰기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1학년 ④ 고등학교 2학년
   ⑤ 고등학교 3학년 ⑥ 없다.

9. 국어 수업 시간에 글쓰기 방법을 배우고 글쓰기 활동을 자주 한다면 논술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부록 2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지문 전문

20세기가 막 시작될 무렵, 뉴욕 센트럴 파크의 미국 자연사 박물관 앞 계단에 서 몇 명의 영국계 미국인들이 자못 심각한 토의를 하고 있었다. 미덕류를 어떻게 하면 제2의 영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었다. 영국계 미국인들은 이미 미국의 동북부를 뉴잉글랜드, 즉 '새로운 영국'이라 이름지었지만,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영국화를 꿈꾸었다. 그들이 생각해 본 계획은 참으로 기발하고도 근본적 영국적인 것이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영국의 새들을 닮았지 미국 땅에 가지는 폐이능자는 계획이었다. 그러면 미국은 자연스레 영국처럼 될 것이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그들은 영국 본토에서 세익스피어의 새들을 압수로 생생히 잡아와 자연사 박물관 계단에서 낚려 보내곤 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새들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모르지만 그 영국계 미국인들은 참으로 몰아 것이 한 것이다. 그 많은 새들은 낮과 밤에서 비참하게 죽어 갔고, 극소수만이 겨우 살아남았다. 그런데 그들 중 유럽산 짰르레기기는 마지막 세계상이라고 만난 듯 틀려 나가 끝과 10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참새를 암지르고 미국에서 가장 혼란 세기 되었다.

우리 나라에도 몇몇 도입종들이 환경을 치고 있다. 예전엔 참개구리가 올던 연못에 요즘은 미국에서 견인한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야 이것저것 닦치는 대로 삼키고 있다. 어찌나 맹성이 좋은지 싶지만-나는 우리 도종 개구리들을 막고 살던 벼마리가 잡아먹는다. 도종 물고기들은 미국에서 들여온 물루길에게 물길을 빼앗기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보다 남의 나라에서 더 잘 살게 된 것일까?

도입종들이 모두 잘 적응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절대 다수는 낮선 땅에 반도 제대로 붙여 보지 못하고 사라진다. 정말 아주 가끔 남의 땅에서 들여 온 물을 무섭게 변해 나가는 것들이 있어 우리의 주목을 받을 뿐이다. 그렇게 남의 땅에서 의외의 성공을 거두는 종들은 대개 그 땅의 특징 서식지에 마땅히 비치고 있어야 할 종들이 최적해진 틀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들이다. 도종이 제자리를 당당히 지키고 있는 곳에 싸사리 뿌리내릴 수 있는 의례종은 거의 없다.
제야무리 대원군이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더 이상 타 문명의 유입을 막을 길은 없다. 어떤 문명들은 서로 만났을 때 충돌을 면치 못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스스로 아끼지 않은 문명은 외래 문명에 턱받을 빚었기고 말 것이라는 예측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듯싶다. 내가 당당해야 남을 수용할 수 있다.

영어만 잘 하면 성공한다는 믿음에 온 나라가 야단법석이다. 한술 더 떠 일본을 따라 영어를 쓰는 방식을 하자는 주장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영어는 배워서 나쁠 것 없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말이다. 우리말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영어를 들여오는 일은 우리 고유를 들보지 않은 채 황소개구리를 들여온 우물 또다시 변하는 것이다.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일은 세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말을 바로 세우는 일에도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된다. 황소개구리의 황소 옷을 같은 소리에 익숙해져 참개구리의 소리를 악시하는 일도 없고,
Abstract

A Study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Class on the Subject of Teaching Essay Writing
- A Focus on Teaching Korean Writing and Reading-

Lee Mi You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Advisor Son Young Ae

As essay writing has been selected by the universities as admission to colleges and as the influence of essay writing grew in the acceptance to colleges, people have been more interested in essay type examinations. Accordingly there are a variety of ways to teach essay writing but essay education has not been made properly on public education. Currently, essay is only recognized as essay type examination so only a few students are being educated in this course outside the class time. However, essay writing is a type of writing that requires critical and logical thinking and that locates the problem and finding the solution. For this purpose, essay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using other subject classes.

Essay writing requires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and contemplative faculty. The subject that manages reading and writing skills is the Korean Language course so it is possible to improve essay writing skills through Korean Cla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essay
teaching plans that could improve the essay writing skills of the students while strengthening the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

To find ways to essay teaching plans, it is important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n Language and education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essay writing.

Through Chapter II, the concept of essay writing and essay writings skills are organized and then the association was reasoned after examining the reading-writing content of the Korean Class curriculum content. And to identify the status of school education, a survey about essay and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 was conducted targeting the teachers and students and afterwards the survey results were analyzed.

After confirming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Essay and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 through Chapter III, this study proposed a teaching method that strengthens the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through Korean Language Arts Classes while connecting it to the essay writing skills. Since the Korean Class are taught through the text books, this study proposed a teaching plan using the text contents of the textbooks and learning activities. Additionally since the classes are connected with evaluations, this study proposed a teaching plan that utilizes the performance assessments.

When the content and method of this study has been summarized, essay writing education is not a special education only for the essay writing skills. In the process of the original goal of what the school education was in pursuit of, it is possible to extend the essay writing skill. Therefore if teachers are faithful to the Korean Class in the curriculum for the proposed goals, then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achieve the writing and reading skills necessary for essay writing abilities. In order for public schools to teach essay writing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think from this point of view in order to develop a
variety of essay writing teaching plans in conjunction with other classes. This study has a limit in the fact that it didn’t verify the teaching methods that are confined to reading-writing education. Therefore through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look for teaching method ways for the Korean Class and other areas.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through verification.

Key words: Essay Writing, Essay Writing Skills, Reading, Writing, contemplative faculty, Essay Writing Teaching Plan, Korean Education Process, Korean Class